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숙 재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하나님개념과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

2011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과  
이 정 민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하나님개념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이 숙 재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유아교육학과

이 정 민

# 인 준 서

이정민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심사위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논문개요

본 연구의 목적은 인격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들의 하나님 인식과 개념의 내면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의 하나님 개념은 어떠한가?
  - 1-1. 유아의 하나님 개념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2. 유아의 하나님 개념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어떠한가?
  - 2-1.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2.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4.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본 연구는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교회 2곳과 교회 부속 어린이집 3곳의 만 4, 5세 유아 126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도구는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측정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유아의 하나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해 하나님 개념 면접 조사와 표상활동을 하였으며,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회성 발달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문제에 따라 빈도분석, 기술통계, t 검증, 단순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들은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였고 ‘엄하신 하나님’으로는 적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 개념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유아들은 사회성 발달에서 ‘활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극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성 발달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유아의 하나님 개념을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 유아의 하나님 개념 중 ‘사랑의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유아의 사회성을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 유아의 사회성 하위요인 중 친밀성과 적극성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목 차

## 논문개요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문제	4
3. 용어의 정의	5
II. 이론적 배경	6
1. 기독교 신앙인으로서의 부모의 역할	6
2. 유아의 하나님 개념	9
1) 하나님 개념	10
2)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하나님 개념	13
3)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유아의 하나님 개념과의 관계	20
3. 유아의 사회성 발달	23
1) 사회성 발달의 개념	23
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회성 발달	25
3)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유아의 사회성과의 관계	27
III. 연구방법	32
1. 연구 대상	32
2. 연구 도구	35

3. 연구 절차.....	38
4. 자료 분석.....	41
IV. 결과 및 해석 .....	42
1. 유아의 하나님 개념.....	42
1) 성별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 .....	42
2) 연령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 .....	49
2. 유아의 사회성.....	57
1)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57
2) 연령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58
3.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	59
4.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	60
V. 논의 및 결론 .....	62
1. 논의 .....	62
2. 결론 .....	68

## 참 고 문 헌

## ABSTRACT

## 부 록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배경 어머니의 신앙생활 배경 .....	32
<표 2> 어머니의 신앙생활 내용 .....	33
<표 3> 부모의 신앙생활 내용, 문항번호와 문항수, 신뢰도.....	35
<표 4> 유아의 하나님 개념 하위변인, 내용, 문항번호 및 문항수, 신뢰도.....	36
<표 5> 사회성 발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채점방법 및 신뢰도.....	38
<표 6> 성별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 .....	42
<표 7> 연령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 .....	49
<표 8>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	57
<표 9> 연령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58
<표 10>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유아의 하나님 개념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 .....	59
<표 11>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	60
<표 12>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유아의 사회성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	61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개인이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관점은 그 사람의 생각과 행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세계관은 개인이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각 개인이 행동하는 모든 것에 이유를 부여하고, 행동방식에 영향을 미쳐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이영주,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한 개인이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개인 삶의 전반적인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종교인에게 있어 신앙은 개인의 신념과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신앙은 그 대상에 대한 앎과 인식을 통해 기초적으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알고 인식하는 것은 매우 상대적이기 때문에 인식의 기반이 되는 외적인 요소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한 개인의 신앙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 개인이 처한 가정이나 사회와 문화 등 외적인 환경이 매우 중요한 변인(요인)으로 작용한다. 특히 유아들은 자신의 의지보다는 부모나 가정환경 등 외부요인들이 신앙과 신앙의 대상에 대한 개념 인식과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 문화의 믿음, 가치, 태도 등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신앙의 행위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기독교인 부모의 신앙관과 신앙 행위는 자녀에게 기독교적인 환경을 제공하며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유아는 주변의 사람들의 신앙의 본보기, 행동, 분위기, 이야기 등에 의해서 강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다.

유아기는 모든 개념이 형성되는 시기로서, 부모 또는 양육자에 대한 신뢰를

기초로 해서 신앙에 대한 구체적 이미지도 형성된다. 즉, 유아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최초의 신뢰관계를 통해서 기본적인 신뢰감이 형성되고 이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형성된다(김국환, 2006). 이는 부모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현실 속에 존재하는 사람의 성격과 그의 행동의 반응양식을 보고 자기 마음속에 그 사람의 이미지를 형성한다고 보는 대상관계 학자들은 유아기에 어머니의 대한 표상 또한 유아와 어머니의 여러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았다(Clair, 1998; Klein, 1975; Rizzuto, 2000; Winnicott, 1997; 노성욱, 2004 재인용).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다른 표상들과 달리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경험을 기본으로 하여 형성될 수 없으므로 어린 유아들은 주로 일차 보호자, 즉 부모와 관련된 기억들로부터 ‘하나님’이란 단어의 내용을 만들기 시작한다(김경혜, 2003). 유아들에게 하나님 개념이란 사랑하고, 위로하고, 돌보는 그리고 강력한, 혹은 벌을 주는 것과 같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잠재적인 행동적인 특징들에 관해 생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종교심리학자들(Harms, 1994; Murphy, 1978; Wright & Koppe, 1964)도 인격형성 시기인 유아기에 어머니와의 관계경험으로 빚어진 관계 형성 내면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미지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따라서 유아가 어머니와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 유아의 하나님 표상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아의 하나님에 대한 표상은 직접적인 경험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머니에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생활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김은실, 2006). 예를 들어, 교회에 출석하고 함께 가정에서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보는 일, 하나님에 대해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는 등의 어머니의 신앙적인 모습을 통해 유아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새롭고 확장된 형태로 발전시키게 되는 것이다(노성욱, 2004). 한편, 모든 부모는 자신들의 자녀에 대해서 기대와 환상을 갖고 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갖는 생각은 의식적인 말이

나 무의식적인 표정, 태도, 암시를 통해서 유아에게 전달되게 되는데 이런 태도 역시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가 하나님을 표상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하나님과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행위는 자녀의 하나님 개념 형성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전한 인격형성과, 사회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유아는 부모와의 최초의 사회적 관계를 맺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의 부모의 신앙적 행위와 태도가 유아의 정서발달과 성격발달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회성 발달은 유아 자신 속에 있는 소질의 자연적인 성숙만으로는 달성되지 않고, 주위의 환경 특히 부모와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형성된다. 가정환경은 부모가 주축이 되어 형성되며, 그 부모는 아동초기경험의 양적, 질적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최미경, 박성연, 1991). 또한 부모가 가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와 신념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녀는 자연스럽게 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학습, 모방하게 되는 것이다. 부모는 유아가 그의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기독교의 미덕을 배풀고 사는 바른 사회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기대와 함께 유아의 사회적 적응을 위해 좋은 모델링이 되고자 한다. 그 중에서도 어머니는 유아의 양육을 전반적으로 책임지고 가장 많은 시간을 유아와 함께 보내는 가장 의미 있는 타인이며, 유아의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의 관계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박성현, 2005).

Emsley(1986)는 가정환경 중에서도 기독교적 환경요인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큰 교육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Ligon(1996)은 부모의 기독교적 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는 높은 관계성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 시기의 부모의 모델링은 유아의 사회적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박성현, 2005 재인용). 따라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바른 신앙생활은 자녀에게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부모가 가진 기독교적인 세계관과 외현적 행위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유아들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인격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인 유아기에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들의 하나님 인식과 개념의 내면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자녀들의 인격형성과 사회성 발달에 부모의 신앙관과 신앙행위가 갖고 있는 의미와 그 중요성에 대한 자료로 사용되리라 생각한다.

## 2. 연구문제

- 1) 유아의 하나님 개념은 어떠한가?
  - 1-1. 유아의 하나님 개념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1-2. 유아의 하나님 개념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어떠한가?
  - 2-1.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2-2. 유아의 사회성 발달이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 3)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4)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3. 용어의 정의

#### 1) 신앙생활(religious life)

본 연구에서는 기독교로 종교의 범위를 제한하며, 신앙생활이란 기독교 신자로서 자신이 믿는 것을 외적인 종교적 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것으로 신앙과 관련된 한 사람의 실제적이고 생활적인 측면을 살펴볼 수 있는 공적이고 또한 사적인 측면 모두를 포함한 외형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앙생활의 내용으로는 주일예배, 기도, 성경읽기 및 성경공부, 기도, 부모의 신앙의 모범, 봉사, 헌금, 가정예배, 자녀와의 신앙에 관한 대화가 포함된다.

#### 2) 하나님 개념

‘하나님 개념’이란 개인이 하나님의 특성에 관한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느낌, 지식, 사고방식, 자신의 견해를 언어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하나님 개념’의 하위요인은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으로 구성된다.

#### 3) 사회성 발달

사회성 발달이란 타인과의 상호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과 그런 기술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성의 하위요인으로 친밀성, 적극성, 표현성, 활동성, 적응성의 5가지로 구성된다.

## Ⅱ. 이론적 배경

### 1.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부모의 역할

신앙(信仰)이란 ‘믿는다’, ‘분명히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신앙은 자신의 믿는 바에 대한 것이다. Fowler(1994)에 의하면 신앙이란 어느 한 순간에 생겨서 완성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정신 속에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가진 씨와 같은 것으로서,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서 몸과 정신이 성장하고 발달해 감에 따라 자라서 성숙한 신앙으로 발달해 간다는 것이다(김국환, 2006 재인용). 그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개념은 단순한 기독교 신학적 개념뿐만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현상으로써 이해하는 개념이며 신앙을 한낱 정적 상태나 소유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능동적인 인식 활동으로 본다. 또한 신앙이란 인간행위 중의 어느 한 측면에만 관련된 개념이 아니라, 인간행위의 세 가지 측면인 지적측면, 정적측면, 의지적 측면이 다 포함된다. 그러므로 신앙이 성숙되어 간다는 것은 인격의 어느 한 측면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측면이 골고루 조화있게 성숙되어 가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신앙성숙은 기독교적 맥락에서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것으로 인간의 지, 정, 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것이며, 신앙의 신념과 신뢰와 행동의 모든 차원에서 성숙하여 개인의 모든 체험과 실존적인 문제를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말한다(김은실, 2006).

이영주(2007)는 신앙의 성숙은 성숙한 내면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이러한 내면은 신앙적 행동이라는 외면적 모습을 결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신앙생활(religious life)이라는 것은 기독교신자로 자신이 믿는 것을 외적인 종교적 행위를 통해 드러내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물론 이

러한 외면적인 행동이 내면의 신념을 모두 나타낼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한 쪽에 치우쳐 외적이며 종교적인 행위만을 중요시하여 신앙의 성숙정도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신앙의 다양한 측면이 잘 드러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확률이 많음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Stott(1999)은 기독교인을 위한 신앙생활을 위한 가이드를 제안하면서 도덕적인 규범을 생활 가운데 수행하며, 성경읽기와 기도, 성도간의 교제와 성만찬을 준수하는 것에 대해 권면하고 있다. Packer(1980) 역시 기도하며 성경의 내용을 아는 지식, 교회 공동체로서 교제하기, 주일 공예배의 참석, 봉사하기, 헌금 등의 훈련이 되어야 함을 언급하고 있다(이영주, 2007 재인용). 이러한 신앙생활을 자녀 교육의 측면과 연결하여 진명옥(2003)은 유아의 신앙발달을 위한 부모의 역할과 관련하여 실제적인 측면으로 가정예배, 성경, 기도, 찬송, 대화 및 훈계, 주일학교, 부모의 신앙의 모범, 분위기, 칭찬, 놀이의 요소가 부모 신앙생활적인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에 Fowler(1994)는 신앙에 몇 가지 특성이 함축되어 있음을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신앙의 보편성이다. 신앙은 특정 종교에만 나타나는 영적 현상이라기보다는 모든 종교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다. 둘째, 신앙의 의미성이다. 신앙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미를 추구하게 한다. 셋째, 신앙의 관계성이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된다. 넷째, 신앙의 행위성이다. 신앙은 영적 가치에 의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참여하게 하는 특성이 있다. 다섯째, 신앙의 상상성이다. 신앙이란 영적인 상상력을 갖게 한다. 여섯째, 신앙의 체험성이다. 신앙은 영적 체험이 가능하도록 한다(김국환, 2006 재인용).

이러한 신앙심의 형성은 감상적이 아니고 이성적 기초위에서 명령적이기보다는 권고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하며, 인간은 자기 스스로 찾은 이상에 애착을 갖고 그것을 전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고자 할 때, 그들의 관심이 무엇인지 알고 개인적 확산을 줄 수 있는 활동을 자극시키는 것이 좋는데 그것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신앙에 대한 올

바른 지식뿐 아니라 신앙의 본보기라 할 수 있다(고경호, 2008).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의 위치가 무엇인가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부모의 위치 여하에 따라서 가정과 사회의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부모의 위치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이다. 먼저, 그러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한다. 부모는 그 가정이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이며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는 “하나님의 가정”으로 인식해야 한다. 또 부모는 가족 구성원이 하나님과의 바른 언약 관계에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박효숙, 2002).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기독교 가정 안에서 부모 또는 양육자의 근본적인 위치는 하나님과 유아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고 매개하는 데 있다. 유아가 속한 가정은 유아를 처음으로 종교로 안내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부모와 유아간의 유기적인 관계성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주영(2005)은 기독교 가정에서의 신앙 교육은 부모의 모습, 부모의 삶의 방식, 자세들을 통해 유아에게 자연스럽게 기독교적인 일을 진행할 수 있음으로서 영적인 변화와 도덕적인 변화와도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기독교 교육의 성패는 가정이라는 장(場)속에서 교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 부모에게 달려 있다(김수진, 2006)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의 초기 시절에 있어서 정서적 상호 관계의 질을 크게 좌우한다. 이들 상호 관계는 나중에 개념이 정착될 경험적 구조가 된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에게 지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자극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해석해 줄 수도 있다. 부모는 하나님과의 대화, 성경, 이야기, 찬양, 자녀와 함께 하는 기도, 그리고 경이로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관찰을 통하여 자녀들의 초기 경험을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첫 경험을 통하여 자녀들은 일생동안 개념을 이루는데 필요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교훈들을 축적해 나가는 것이다.

유상무(2004)는 기독교 가정의 중요한 교육방법은 부모자신이 참 기독교인

으로써 신앙을 학습하는 것이고, 그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양육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라고 했다. 가정에서 부모는 말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다. Francis(1979)는 처음 아동들의 종교적 행위와 종교에 대한 태도는 다른 방식이 아니라 부모의 종교적 행위에 의존한다고 추정하였다. 그는 이러한 가정으로부터의 부모의 모범에 의해 영향 받는 종교적 범위가 태도 점수의 가장 강력한 예측자임을 논증하였다(노성욱, 2004 재인용). 또한 부모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교회와의 연결 하에서의 자녀교육인 것이다. 부모는 기독교 진리의 적용 능력에 있어서 교회와 협력하여 교육해 나아가야 한다. 즉 자녀들이 교회의 교육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고 지원해 주어야 한다.

기독교 가정 내에서의 또 다른 부모의 위치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자녀들을 이끌어주고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 부모들은 자녀를 가르치기 전에 자녀들에게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 주어야 하며 자녀들이 친구들과 함께 뛰어 놀 때 의(義)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돌보심과 정의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함을 가르쳐야 할 것이며 자녀들이 판단할 일이 생겨날 때마다 정직과 슬기로우이 그를 따르도록 가르쳐야만 한다(곽선희, 1986).

따라서 부모는 기독교적인 양육의 책임을 받아들이고, 유아에게 신앙의 모범을 실천하며, 날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영적 모범을 보여 주어야 하며,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로 인정하고 개체성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부모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그 모범을 통한 학습을 하고 동일시함으로써 부모와 같은 좋은 성품을 지닌 자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 2. 유아의 하나님 개념

다음은 유아의 하나님 개념이 어떠한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개념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

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하나님 개념

먼저 하나님 개념에 대한 정의를 알아보고, 유아들의 그림에 표현되는 하나님 이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1) 하나님 개념의 정의

‘하나님’이란 용어는 사람들마다 다채롭게 사용된다. ‘하나님’은 그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있다(이영주, 2007, 재인용). ‘하나님 개념(God concept)’이란 ‘하나님(God)’과 ‘개념(concept)’으로 이루어진 말이다. ‘하나님’이란 사전적인 정의로는 기독교나 다른 유일신 종교에서 창조주자 온 세계를 통치하는 분, 창조주이고 우주를 다스리는 절대적인 힘과 지혜와 선함을 가진 절대자라는 뜻이다. 이에 대한 기독교의 견해는 성령이나 영원한 초월적인 법칙을 가진 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인간의 경배를 받는 존재로 집약된다(온라인웹스터사전, 2006).

‘개념’이란 어떤 대상에 대한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지식을 의미하며 각각의 사물로부터 공통적 일반적 성질을 추출하여 이루어진 표상으로 관념, 개요, 지식, 사고방식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다시 말해 ‘개념’은 그 대상에 대한 언어적 표현과 연결되어 있는 논리적인 실재이며, 관념, 이미지, 견해와 같은 의미로 통하기도 한다.

‘하나님 개념’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과 관련된 것으로서(신은정, 2000) 사랑, 위로하심, 돌보심, 전능하심, 벌주심 등과 같은 하나님의 특성에 대한 개념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따라서 ‘하나님 개념’이란 개인이 하나님의 특성에 관한 일반적이고 본질적인 느낌, 지식, 사고

방식, 자신의 견해를 언어 등을 통해 표현하는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하나님 개념(God concept)’이라는 용어는 어떤 태도와 방향을 구성하게 하는 정신적인 이해 또는 생각이라는 점에서 ‘하나님 이미지(God image)’라는 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이영주, 2007, 재인용). 이와는 다르게 하나님에 대해 마음 속에 그리는 상(像)인 ‘하나님 표상’이라는 용어와 구분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김난예, 2002). 즉, 하나님 개념은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를 가리키고, 하나님 표상은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해석하는가’라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대상에 대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통해 그 대상에 대한 그림을 마음 속에 그리게 된다. 그리고 그 마음 속의 그림은 언어나 그림, 혹은 음악과 같은 도구를 사용하여 밖으로 표출이 되며, 이를 통해 그 자신이 가진 특정 대상에 대한 지식을 드러내는 것이기에 Siegler(1995)의 견해처럼 개념을 표상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이영주, 2007 재인용). 즉 ‘하나님 표상’은 ‘하나님 개념’, ‘하나님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므로 이들은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하나님 개념’의 용어는 하나님에 대한 느낌, 지식, 하나님 표상, 하나님 이미지 등으로 모두 포함하는 의미로 사용될 것이다.

## (2) 그림으로 표현되는 하나님 이미지

하나님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으로 유아들이 이해하기에 어려운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실재적인 사고를 하는 아동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심리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그리고 정신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분화하여 생각하지 못하고, 내적인 것 심리적인 것, 정신적인 것을 모두 물체화하여 생각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추상적인 하나님 개념을 질문하여 언어로 응답을 구한다면 아동에게서 정확한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유아는 언어발달이 미숙하여 외부세계에 대한 자신의 느낌이나 감정

을 언어로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한다. 유아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도구는 미술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유아는 미술활동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자유롭게 표현한다. 정신분석론자들은 유아는 자신이 느끼는 것을 그림을 통해 표현한다고 하였다. 즉 유아의 그림이 유아의 잠재적 사고와 감정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인지발달론자들은 유아는 본 것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그린다고 하였다.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라면 유아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도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반영한 그림을 그린다고 본 것이다. 이와 같이 유아 미술에 대한 이론적 관점들도 유아의 사고를 조사하는데 있어서 유아의 그림이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나님 개념에 대해서는 Harms(1994)로부터 시작되어 어린이의 연령이나 성별과 관련된 연구에 보편적으로 사용하게 된 연구주제이다. 그는 어린이의 하나님 개념을 파악하기 위하여 최초로 그림 그리는 방법을 적용하여 그들의 종교적 개념 및 사고를 연구하였다. 이 같은 연구는 어린이의 언어의 제한성에서 비롯되었다. 어린이는 언어적 매체를 통해서 생각하고, 느끼고, 보고, 들은 것보다 정확하게 묘사하거나 전달할 언어적 능력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심미적인 이해반응을 파악하기 위해서 비언어적 방식을 채택하였던 것이다. 또 그는 아동의 그림 속에는 말로 표현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표현되고 있다고 하였다. 6세 이하 아동들의 그림에 표현된 하나님의 모습은 동화 속에 나오는 왕으로서 수염이 났으며, 하늘에 거주하는 상상의 인물이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에 의해 그려진 하나님의 모습은 일반 동화 속의 왕의 모습과는 뚜렷이 구별되었는데, 그것은 동화 속의 왕과는 달리 경외심과 연계된 개념이 노출되고 있었다고 하였다. 이를 근거로 Harms(1994)는 6세 정도의 아동도 비록 언어적인 표현에서는 그렇기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어느 정도 깊은 종교적 경험이나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Pitts(1996)도 Harms(1994)와 같이 그림을 가지고 어린이의 하나님 개념을 연구하였으나, 차이점은 그림에 대한 이해의 상이점이다. Harms(1994)는 어린

이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다음, 그 자료를 중심으로 그들의 신앙의 내면 세계를 분석하였으나, Pitts(1996)는 보다 진전된 연구방법인 투사적 테스트 방법을 적용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그림을 그리게 한 후, 어린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림의 의미를 직접 질문함으로써 종교적인 사항들을 추가하고 그 후에 그 어린이의 부모나 성직자에게 질문지를 통하여 종교적 양육의 방법을 확인함으로써 어린이가 어떠한 요인들에 의해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가의 배후적 요인들도 파악하였다(김국환, 2006 재인용).

Pitts(1996)의 연구는 두 가지로 구별되는데 하나는 어린이가 직접적으로 본 것을 그리는 방법과 다른 하나는 이해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것을 그리게 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전자와 같은 것을 지각적 견해(perceptual perspective)라고 하고, 후자의 경우를 지적 견해(intellectual perspective)라고 하였다.

또한 한국 아동을 대상으로 그림을 통해 하나님 개념을 조사한 김성원(2000)의 연구에서 하나님 그리기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은 연령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송수희(1983)는 아동은 자신이 아는 것을 그림을 통해 표현하며, 추상적인 개념 예를 들면 사랑, 신, 삶 등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였다. 아동의 그림은 추상적인 개념을 표현하기 위한 좋은 도구가 된다고 하였다.

## 2)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하나님 개념

### (1) 성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

유아의 성에 따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일반적으로 남아들의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권위적인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여아들의 경우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돌보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과 같이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이영주, 2007 재인용).

이와 같이 성별에 따른 하나님 개념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들이 있다. Swainson(1939)은 남아와 여아의 하나님 개념을 비교하였다. 즉 여자 아이의 경우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함, 그리고 사랑에 관심을 가진 반면 남자 아동은 객관적인 하나님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다(김신옥, 2002 재인용). 4세에서 12세까지의 아동 48명을 대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연구한 Heller(1986)도 하나님 개념이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이영주, 2007 재인용). 즉 남자 아이는 하나님의 합리성과 사건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강조한 반면, 여자 아이는 합리성 보다는 심미적인 측면의 특성이 강조되는 하나님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즉 수동적인 모습으로 참고 기다리시는 모습, 또는 인간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참여자라기보다는 오히려 관찰자로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개념을 지니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이영주(2007)의 연구와도 일치하였다. 남아들은 여아들에 비해 하나님을 세상의 일에 더 관여하시는 분으로 인식하며, 여아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일에 관여하시기보다는 관찰하시는 분으로 인식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의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남아가 여아보다 하나님을 더 멀리 계시는 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Gilligan과 Wiggins(1998)는 남아들은 정의, 공정성, 법의 힘과 관련한 하나님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여아들은 동정적이고, 돌보고, 위로하는 역할에 대해 더 많이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다(이영주, 2007 재인용). 좀 더 나이가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에서는 송희자와 이성숙(1968)은 초등학교 3학년 학생과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는데 남아는 하나님을 인간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았다. 반면, 여아는 하나님을 초인간적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과 구별하여 생각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성차가 나타나는 것과 관련하여 남자와 여자 사이의 하나님 개념의 차이를 성향

의 차이로 기술하고 있다. 즉, 여자는 좀 더 종교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또한 신은정(2000)의 연구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있었다. 남아들은 하나님의 합리성과 사건에 참여하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반면, 여아들은 하나님의 심미적인 측면의 특성이 강조되는 모습을 하나님 개념으로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어리거나, 덜 유능한 아동들과 유사하게 여자 아동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친절함 그리고 사랑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반면, 남아나 유능한 아동은 하나님의 능력, 위대함 등의 객관적인 하나님 개념을 더 사용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종희(1986)의 연구와 김신옥(2002)의 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하나님 개념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신옥(2002)은 하나님 개념의 내용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에는 성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만 인지적인 구조의 측면에서 살펴보았을 때는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한다.

요컨대, 성의 차이에 따라 하나님 개념의 차이는 부분적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즉, 남아들의 경우 여아들에 비해 하나님을 좀 더 합리적이고 권위 있고 공정한 성향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여아들의 경우 남아들에 비해 좀 더 양육적이고 돌봄과 위로함 등과 같은 정서적인 지원의 측면을 더 많이 인식하고 있다.

## (2) 연령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

하나님 개념이 어떻게 발달하고 변화되는가에 대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초기의 연구에서부터 최근의 연구에 이르기까지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을 근거로 하여 각 인지발달의 단계에 따라 유아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발달되어 나가는 것을 부분적으로 고찰하거나(김인제, 2003; 노성옥, 2004; 송수희, 1983), 실제 연령이 다른 유아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개념이 어떻게 다르게 나

타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김신옥, 2002; 문미옥, 이해상, 1993; 신은정, 2000; 이종희, 1986).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을 근거로 하여 어떻게 하나님 개념의 발달이 이루어지는가를 연구한 대표적인 학자인 골드만과 파울러의 이론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Goldman(1964)은 Piaget의 인지발달이론을 아동과 청소년의 종교적 사고 발달에 적용하여 아동기에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종교적 사고형태 및 발달 과정을 추적하였다(이영주, 2007 재인용). 그는 종교적 사고형태와 발달은 직관적 종교사고, 구체적 종교사고, 추상적 종교사고의 순서로 진행된다고 주장하였다. 7세부터 8세까지에 해당되는 직관적 종교사고 단계의 어린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인간적이며 신적인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8~12, 13~14세에 해당되는 구체적 종교사고 단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초인간적인 면에 의심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에 대해서 현실적인 면과 관련하여 생각하고 인간적인 성향을 가진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있다. 마지막 단계인 추상적 종교사고의 단계는 13~14세 이상의 어린이로 종교적 개념을 비교적 바르게 이해할 수 있고 이를 생활에 접목할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이다(김국환, 2006 재인용). 본 연구의 연구대상에 해당되는 단계는 직관적 종교사고의 시기에 해당되는 데 그는 이 시기의 하나님 개념이 '신인동형론적(anthropomorphic)'이라고 보았다. 즉, 이 연령대는 하나님의 외형적인 모습과 신체적인 면을 강조하는 시기로 예를 들자면 이 시기의 아동들은 하나님이 흰 옷을 입고 긴 머리에 흰 수염이 있으며 하늘에 계신 분으로 사람과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일평생을 통한 신앙의 변화에 관심을 가진 Fowler(1994)는 인간 종교 발달의 단계를 7단계로 나누었는데, 유아교육과 관련이 된 2단계까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영주, 2007 재인용). 태어나서 4세까지를 신앙의 기초적인 덕목인 신뢰나 불신, 희망과 좌절, 용기와 비겁함 등이 형성되는 시기로 보면서 원천적 신앙(primal faith), 미분화된 신앙(undifferentiated), 혹은 단계 이전

(pre-stage)신앙이라고 지칭된다. 특히 이 시기에는 어머니와의 관계와 신뢰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신앙이 형성되는데 만일 돌봄을 제공하는 자와 신뢰로운 관계가 형성되지 않을 경우 불신과 절망과 같은 자질들이 자리잡게 된다고 하였다. 4살부터 7, 8세까지의 시기는 직관적/투사적 신앙(intuitive/projective faith)이라고 불린다. 이 시기의 신앙은 환상에 가득 차 있고 타인을 모방하는 신앙으로서, 이 단계의 아동은 자기와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신앙의 본보기들, 분위기, 행동, 이야기들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게 된다. 다음 단계인 신화적/문자적 신앙(mythic/literal faith)은 11, 12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여기에 속하며 몇몇 성인들에게서도 관찰된다. 이 시기는 논리적으로 사고하지만 추상적인 사고가 어려워 융통성이 없고 자기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것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을 문자적으로 판단하여 자기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시기이다.

Harms(1994)도 Piaget의 이론을 기초로 하여 어린이가 하나님을 인식함에 연령별로 차이가 있음을 인식하고 이를 3단계로 구분하였다(김국환, 2006 재인용). 3~6세에 해당되는 동화적 단계, 이 시기의 어린이는 하나님이나 종교적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동화나 상상상으로 유추하여 묘사하였다. 7~12세 실제적 단계의 어린이는 자신들과 주변의 사람들이 신앙과 관련하여 생활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Harms(1994)가 실제적 단계라 표현한 것은 어린이가 종교적 개념들을 제한적이나마 이에 대하여 묘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13~18세 개별적 단계에서는 하나님이나 종교적 개념에 대하여 정서적으로 또는 개인적으로 이해하려는 것과 부모나 주변의 영적 영향으로부터 벗어나 개인주의적 이해를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다.

Harms(1994)가 연구한 하나님 개념은 Piaget의 인지발달론과 비교해 볼 때, 전 조작기 어린이의 비논리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구체적 조작기 사고의 특성 및 형식적 조작기의 추상적인 인지발달 과정들과 비교적 일치하는 것으로

로 평가되었다.

위에 언급한 Goldman(1964), Fowler(1994), Harms(1994) 모두 유아의 인지적인 발달을 통하여 ‘앎’이 증가되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 개념의 변화가 이루어짐을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각 발달단계에 적합한 방식의 신앙교육의 방법과 연결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의 지적발달에 ‘신앙’을 제한시킴으로써 유아의 발달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간과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정희영, 2004).

이처럼 유아의 신앙발달이 인지적인 발달과 함께 한다는 이론과 맥을 같이 하여 실제 유아들 간의 연령 차이에 따라 하나님 개념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들은 위에서 언급한 Goldman(1964), Fowler(1994), Harms(1994)의 견해처럼 인지적인 발달이 이루어짐에 따라 하나님 개념이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내연구로는 다음과 같다.

송수희(1983)의 만 5세 유아들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신 개념 발달에 대한 연구에서 어린이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신인동형론적(anthropomorphic)인 사고는 점차 증가하였으며, 신의 존재 장소에 관하여서도 점차 ‘하늘’과 같은 구체적인 장소를 언급하는 것에서 ‘내 마음 속’, ‘어디든지’ 등과 같은 추상적인 장소로 발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의 능력에 대해 갖는 생각에서도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현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에서 비가시적인 현상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희(1986)의 5세에서 18세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나님 개념 발달 경향을 알아본 연구에서도 어린이들의 하나님 개념은 직관적, 구체적, 추상적 조작단계를 거쳐 발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나님이 어디나 계시다는 편재성과 공평성,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것과 관련한 하나님 개념은 연령의 증가에 따라 의미있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해하는 신인동형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

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단계적으로 강화하다가 점차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므로 형체가 없다’고 반응하는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만 2-3세의 유아들은 하나님을 마술적인 힘을 가지고 자신을 돌보아 주는 존재로서만 이해하는 반면에 만 4-5세로 접어드는 유아들은 하나님이 매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벌을 내리는 존재라고 이해한다. 만 6-7세의 아동들도 하나님은 신인동형론적(anthropomorphic)으로 이해하지만, 유아기의 개념과는 달리, 특정의 질서에 따라 활동하는 존재로서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 소수의 아동들은 영(spirit)으로서의 하나님 또는 사랑(love)으로서의 하나님이라는 종교적 개념을 형성하기도 하며,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개념에서 벗어나기도 한다. 만 8-9세에는 대다수 아동들이 하나님을 영적(spiritual) 존재로서 이해하기 시작하며, 전지(all-knowing) 또는 전능(all-powerful)이라는 속성으로써의 하나님의 개념을 구성하려는 인지적 특성을 보인다. 또한 구체적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의 활동이나 교회 행사의 참여에 대한 책임의식과, 하나님과의 개인적 관계의식까지도 발견할 수 있다(박광농, 2009 재인용).

김신옥(2002)의 연구에서 4세부터 12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역시 연령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었으며. 신은정(2000)의 연구에서도 아동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었다. 만 4세-5세 유아를 대상으로 조사한 이영주(2007)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하나님 개념의 하위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만 4세아가 만 5세아보다 ‘엄하신 하나님’ 개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해 보면 유아들의 하나님 개념은 전반적인 유아의 인지발달 수준과 그 흐름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아들은 자아중심적인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개념이 대체로 연령이 증가하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김신옥, 2002; 송수희, 1983; 이종희, 1986).

### 3)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유아의 하나님 개념과의 관계

Goldman(1964)에 의하면 보편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용어 이해는 아동기 전 반부에서 시작되어 추상적인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후반기 이후에 구체화 된다고 한다(김인제, 2004 재인용). 그러나 이러한 개념형성과 이해는 순간적인 사고의 변화나 발달에 의한 것이 아니고 유아기 때부터 점진적으로 발달되는데 특히 주변으로부터 받은 영향에 의한 결과로 인식하고 있다.

부모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과 믿음은 신앙생활의 실제적인 측면으로 드러나게 된다. 부모가 교회에 출석하고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보고 봉사활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유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해 보게 될 것이고 이러한 경험으로 통하여 유아 자신의 하나님 개념을 수립해 나가게 된다(이영주, 2007). 부모의 구체적인 신앙 행동과 가정의 신앙적 환경은 유아의 신앙발달, 특히 신학적 개념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정희영, 1996). 이것에 대해 Carrier(1965)는 부모의 신앙생활이 그들의 자녀들을 특별한 신앙의 전통 안에서 사회화시키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이영주, 2007 재인용).

하나님에 대한 유아의 느낌과 이미지는 부모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동은 하나님에 대해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기도, 이야기, 부모에게 하는 질문 등의 구체적인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의 이미지를 창조한다. 유아는 점차로 공적이고 제도적인 종교를 접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다시 형성하고 다시 생각하는 일이 필수적으로 따른다(김인제, 2004).

또한 하나님 표상을 형성하는데 최초의 어머니와의 경험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최승자, 2005). 유아가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대상을 자신의 경험에 연결시킬 수 있게 될 때, 유아는 그 관계를 설명할 자원으로 어머니와의 반영(反映)단계에서의 경험을 활용하게 된다. 즉 유아가 어머니라는 거울에서 자신

을 발견하고 그 거울을 통과해서 그 뒤의 대상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유아는 자신은 어른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작은 존재이며, 그 어른은 자기의 마음속까지 알고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아동은 하나님에 대한 모호한 개념을 조직화하기 시작한다. 한 개인은 생의 초기에 경험한 정서적 관계들을 통해서 그 자신이 형성하는 하나님 이미지를 채색하고 그 형태를 결정하며 또한 자신이 그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 맺을지를 결정한다(김인제, 2004).

부모의 구체적인 신앙생활 중에 교회의 출석과 관련하여 살펴본 몇몇 연구에서 공중예배의 참석이 유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 강력한 요인이 됨을 언급하고 있다(Greeley & Rossi, 1966: I.F.O.P., 1958: 이영주, 2007 재인용)

Goldman(1964)의 연구에서도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교회에 참석하는 가정의 유아가 부모 모두가 교회에 다니지 않는 가정의 유아보다 종교, 교회, 기도와 같은 종교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다(김국환, 2006 재인용).

Hyde(2004)는 교회에 출석하는 가정의 자녀들의 종교적 사고와 성경의 사실에 대해 조사하였다(이영주, 2007 재인용). 이들은 부모가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더 호의를 가지고 있으며 높은 종교적 사고 점수를 나타내었다. 이 역시 가정의 신앙교육과 같은 분위기와 유아의 신학적 개념과의 상관을 증명해준다. 이것은 결국 가정 내의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이고 개방적이며 교육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이 유아의 종교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Klaghofer & Oser, 1987: 김현옥, 2008 재인용).

김은실(2006)의 연구에서 어머니의 신앙 성숙 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하나님 표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즉, 신앙생활기간과 어머니의 직분, 그리고 성경공부 정도와 유아의 하나님 표상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이 나타났다. 신앙생활기간이 오래 될수록 유아

의 하나님 표상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직분이 있는 경우와 성경공부 횟수가 많을수록 하나님 표상과 높은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이는 성경공부나 교회에서의 생활이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변화시키고 이는 곧 유아를 양육하는 태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가정 안에서의 교육은 가족 특히 부모와 자녀간의 유기적인 관계성 안에서 이루어진다. 가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든지 가정은 유아를 처음으로 종교로 인도하는 곳이다. 왜냐하면 가정은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일을 진행할 수 있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감사기도를 한다든지, 취침 전에 기도를 한다든지 또는 가정 예배 등을 통하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종교세계로 인도된다(김인제, 2004).

그러나 종교에 대한 말을 전혀 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성장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신앙에 영향을 받게 된다(김은실, 2006). 왜냐하면 종교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삶을 통해 소극적인 교육(negative education)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특히 한 가정 안에서는 서로의 생활이 유리로 들여다보는 것과 같기 때문에 자기의 믿는 바를 다른 가족에게 숨기는 일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며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신념이나 주의는 그의 행동과 말에 나타나기 때문에 부모에게 어떤 신앙이 있는가는 저절로 알려지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기독교 가정에서 유아들에게 지식과 교리만을 가르치는 것 외에도 자신의 신앙적인 삶을 통해 유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바른 신앙인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삶을 통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부모의 이러한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하는 것과 직접 관련된 연구는 많지 않다. 그러나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과 같은 외현적인 모습을 역할모델로 삼게 될 것임을 추론할 수 있다(이영주, 2007). 정정숙(1997)은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효과적으로 심어주기 위해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이는 성인의 모델링을 통해 살아 있는 성경

진리를 유아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을 통해 볼 때 부모의 신앙생활적인 측면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

### 3. 유아의 사회성 발달

다음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고, 유아의 사회성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고,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 1) 사회성 발달의 개념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나며 여러 형태의 사회적 과정을 거쳐서 사회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간성을 사회성(sociality)라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사회성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 그러나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인간은 그가 태어난 문화, 시대, 성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 유아가 성장해 가면서 사회의 도덕성과 규범에 순응하고 창조적으로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통합된 인성으로 성숙해 가는 데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인간관계는 사회생활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이며 사회성이 높을수록 대인관계가 좋고 사회활동을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이다(민혜영, 1998).

유아의 사회성이란 유아가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는 동안에 그 사회에서 공인된 언어, 사고, 감정, 행동 등을 포함하는 생활양식을 학습하여

타인과의 상호접촉을 통한 건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유아교육사전, 1997).

한편, 유아의 사회성을 사회성숙도와 사회적 능력의 혼합으로 정의내리고도 있다. 사회 성숙도는 타인과 상호작용하는 대인관계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효과적으로 이해하고 수용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사회적 양식, 가치, 태도 등을 습득하는 것을 의미하며(정정자, 2005), 사회적 능력은 사회 인지 측면과 관련시켜 문제의식, 문제해결력, 사회적 목표달성, 환경에 대한 대처 능력 등을 말한다(최진양, 2004).

이처럼 유아는 사회의 한 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는 동안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 나가고 인간관계를 배우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나 가치 성공감 등을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함양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게 된다. 사회성 발달은 사회와의 개념과 마찬가지로 유아의 사회적 차원에 대한 광범위한 영역을 통틀어 말하는 것이고 사회마다의 근본 가치를 반영하는 것으로 그 개념과 정의도 광범위하여 학자마다 서로 다른 견해들을 보여주고 있다.

Sarason(1981)은 사회성 발달이란 타인과의 상호 호혜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기술의 습득과 그런 기술들을 상황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였으며(김혜숙, 2008, 재인용), 이은혜(1995)는 사회성 발달과 같은 개념으로 사회적 능력, 사회적 상호작용 그리고 사회적 유능성의 개념을 들었다. 또한 이은영(2009)은 유아가 사회의 한 성원으로 성장, 발달하는 동안 자율성과 독립성을 키워 나가고 인간관계를 배우며, 자신에 대한 긍정적 관점이나 가치, 성공감 등을 경험하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태도를 함양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사회성 발달이라고 정의하였다. 유아교육에서의 사회성 발달이란 인지발달이나 정서적 발달, 신체적 발달 등이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도덕적 가치, 사회적 기술, 인간 상호관계 기술, 사회적 유능성, 사교성, 또래 상호작용 기술 등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신옥순(1995)은 유아 사회성 발달의 특징을 4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먼저, 주도성이 강해지면서 점차 독립심과 자신감을 얻게 된다. 둘째, 관심의 대상이 가족에서 또래로 바뀜으로서 경험의 폭을 넓혀가면서 강한 또래집단을 형성한다. 셋째, 사회 속에서 나를 인식함으로써 자아개념 확립의 기초를 형성한다. 넷째, 성역할을 인식한다. 이러한 경향은 연령이 증가하면서 점점 뚜렷해지고 전 생애를 통해서 지속된다.

앞에서 제시된 정의들을 종합해 보면, 사회성 발달이란 유전의 영향을 받기 보다는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고 있는 성숙의 한 요인으로서 유기체가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적 태도, 기능, 지식 등을 습득하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 2) 성별과 연령에 따른 사회성 발달

### (1) 성별에 따른 사회성 발달

대부분의 유아는 남, 여 성별에 따라 가족 또는 사회에서 다르게 사회화되고 행동하기 때문에 그 발달적 결과에 따라 사회적 능력 간에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원희영, 1998). 성별에 따른 관련 연구를 보면, 성별에 의해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 간에 차이가 있다는 보고한 연구들도 있고(함용선, 2003; 전진석, 2005; 남중진, 2006; 한애희, 2009; 최은경, 2009) 성차가 없다고 보고한 연구들도 있어(김정애, 2003; 최진양, 2004; 박민정, 2004) 일정한 결과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러한 연구들은 사회적 능력의 하위 변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다고 한다.

Ford(1982)의 사회적 인지와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에서 사회적 능력은 성별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사

회적 능력이 더 뛰어났다고 하였다(민혜영, 1998 재인용). 또한 이병림(1986)에 의하면 교사는 거의 모든 발달영역에서 여아를 남아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는데, 사회성 발달 면에서도 여아를 남아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강미경(2008), 김수연(2002), 박해연(2004), 정정자(2005)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또한 신명숙(2007)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모든 하위영역에서 더 높은 발달을 보여 의미있는 집단 간의 차이를 보였다.

반면에 Lieberman(1977)이 3세 유아를 대상으로 자유놀이 시간에 또래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하여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평가한 연구에서는 성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원희영, 1998, 재인용), 한성희(1985)의 연구에서도 사회성 발달의 평균점수가 여자가 남아보다 다소 높기는 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고 하였다. 김애숙(2005)의 연구에도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살펴본 결과, 남아가 여아보다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하위영역별로 사교성, 안정성, 예절성, 근면성, 준법성, 수용성, 자율성, 지도성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성 발달이 빠르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적응하는 능력이 빠르다고 볼 수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있으나, 여아의 사회성 발달이 남아에 비하여 다소 높은 것으로 추론해 볼 수 있다.

## (2) 연령에 따른 사회성 발달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능력이 더욱 발달한다고 보고 있다. 조성자(2003)의 연구에서 유아의 사회성 발달은 만 3세, 4세보다는

만 5세 유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정정자(2005)의 연구에서는 만 6세가 만 5세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박범실(1987)의 연구에서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만 3, 4세 아동보다는 만 5, 6세 아동이 더 활동적이었고 협조적이었다고 분석되었다. 이 밖에도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는 국내연구들은 많이 있다(김진이, 1996; 조성자, 2003; 최모세, 2005; 정미자, 2006; 손수일, 2006; 신명숙, 2007; 한동원, 2009; 한애희, 2009).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볼 때 유아의 사회성 능력은 연령에 따라 발달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과를 도출해 내기도 하였다. 김애숙(2005)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사회성 발달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전체적으로 만 5-6세가 만 3-4세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최진양(2004)의 연구에서도 유아들의 사회적 능력 발달 수준은 연령별로 큰 차이가 없다고 나타났다.

그 밖에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증가를 주장하는 연구들(이옥경, 이순형, 1996)도 있으며 연령에 따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가 없다는 국내연구들(박경원, 1986; 서봉연, 1984)도 나타나 연령에 따라 항상 증가한다는 일관된 연구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는 유아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이러한 행동이 조금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물론 모든 유아들이 친사회적 행동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며 유아가 성장하고 사회화 경험에 계속 직면하면서 감정이입의 반응을 학습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Beaty, 2001; 박성현, 2005 재인용).

### 3)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유아의 사회성과의 관계

가정은 유아가 사회성을 제일 처음으로 배울 수 있는 곳이다. 즉 부모가 유

아와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양육하느냐에 따라 유아의 특성과 기대되는 역할이 달라진다. 가정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근거로써, 가족구성원은 인간이 최초로 사회적 접촉을 하는 사람들이며 생후 초기는 사회성 발달에 결정적 시기로, 부모와의 관계는 후의 사회적 관계에서 유아의 기대와 반응을 형성하게 된다(유효순과 이영자, 1986). 유아는 이러한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사회적 경험을 시작하며 또 동일시하여 가치관, 태도 등을 학습하고 모방한다(이은영, 2009). 특히 어머니가 대부분의 자녀양육 기능에 대한 책임을 지므로 유아의 사회성에 큰 영향력을 지닌다(이은영, 2009).

종교는 덕을 행하고 실천하기 위한 규칙들을 인간에게 가르친다(고경호, 2008). 기독교 또한 본래 종교와 윤리의 양면을 겸비하여 개인의 이상과 행동과 규범과 인생 등의 의미에 대한 인식을 확립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선행연구들을 보면(손성욱, 2001; 양광자, 1990; 오승은, 1994; 전교식, 2003; 최재희, 2006)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 삶의 만족도, 자아실현, 자아정체감이 높아진다고 하였으며 올바른 신앙생활과 신앙성숙이 기독교 청소년들에게 원만한 대인관계 및 건강한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김성수, 2007; 유선애, 2001). 따라서 종교는 기본적으로 사회의 제반 구조를 정당화시키고 사회적 적응을 도와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의 가르침 중 기독교의 진리와 미덕을 중요시하는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이나 교육관에도 기독교적 인간관과 성경의 교리를 접목시키게 된다. 즉 부모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유아를 어떻게 양육하느냐에 반영되는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 부모는 아이를 양육함에 있어서 기독교적 교리와 가치관을 자연스레 염두에 두며, 유아가 모든 사회생활 속에서 기독교의 미덕을 배풀고 사는 바른 사회인으로 살기를 바라는 기대도 갖고 있다. 또한 부모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느낌, 하나님에 대한 태도는 자녀에게 건전한 신앙심과 인격을 가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부모는 자신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재현하는 좋은 모델링이 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는 믿음, 정

직, 관용, 성실, 사랑, 순종, 충성과 같은 친사회적 행동을 발달시킨다(김미경, 2003). 실제로 Ligon(1996)은 부모의 기독교적 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는 높은 관계성이 있다고 말하였으며(박성현, 2005, 재인용). 이 시기의 부모의 모델링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정에서의 부모의 바른 신앙생활은 자녀에게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데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Crabb(1976)은 성경적인 사고와 그에 일치하는 행동을 하는 기독교인을 성숙한 기독교인이라 하고, 성숙한 기독교인은 이타성이 높다는 주장했고, Landis(1970)는 종교적 신념은 내적 신뢰감의 근원이며, 종교를 가진 사람은 그들 자신의 흥미와 희망을 쉽게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타인의 동기와 흥미 또한 중요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다(최재희, 2006 재인용). 또한 김연진(1993)의 연구에서는 신앙정도가 높을수록 이타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인은 기독교적 교리와 미덕이 일상생활에서 외현적인 모습으로 표출되기 마련이다. 즉 기독교 부모의 신앙성숙이 부모의 기분, 행동, 언어로 표출된다. 유아는 이러한 부모와 사회적 경험을 하며 가치관과 태도 등을 학습, 모방한다(이은영, 2009). 이금만(2003)은 부모의 신앙성숙이 아동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강력한 원천이 된다고 하였고, 원정희(2007)는 이러한 아동이 갖는 선악의 개념이 성인의 말에 의해 습득하는 것보다 주로 하는 행동을 보고 얻게 된 경우가 훨씬 많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박경희(1994)의 연구에서 가정과 교회에서의 기독교적 환경이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였으며,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서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윤주병, 2005). 이는 부모의 모습에서 나타난 신앙성숙이 유아의 사회화 과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는 그의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이나 행동, 신념, 가치관을 닮아가게 되므로 가정 안에서의 어머니의 일관적인 신앙적 태도는 가정 밖에서의 삶 사이에 괴리가 생기지 않아서 그 자녀가 사회에서도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

게 되는 것이다. 그러한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배려할 줄 안다.

자녀는 부모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부모가 세상을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자녀도 똑같이 부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면 자녀도 그러할 것이다. 실제로 어머니의 자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 심리적 자세는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남명옥, 2004), 유아의 유치원 초기 적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임해영, 2007).

이렇게 유아의 사회화 과정을 돕는 부모의 구체적 기술에 따라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부모의 구체적 기술은 기독교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유아에게 제시된다. 신앙은 개인의 신념과 삶의 가치관과 태도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듯이 기독교 문화의 믿음, 가치, 태도 등은 일상생활의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부모의 신앙행위를 통해서 나타나며, 이러한 부모의 신앙관과 신앙행위는 자녀에게 기독교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자녀에 대한 양육신념, 양육태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박혜옥(1985)의 기독교인 어머니들의 유아양육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기독교 부모들은 자녀에 대해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가장 많이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에게 공공연하게 애정을 표현하며 자녀의 행동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양육태도라 말할 수 있다. 부모가 자녀에게 성취감을 북돋아 주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해 주며 가정의 분위기를 수용적이고 민주적으로 만드는 것은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며(정정자, 2005), 이러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의 인성 형성 및 행동 발달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민영미, 1999).

신앙에 관련된 선행연구를 보면, 대상이 청소년과 대학생과 장년과 노년층이 많고(공성택, 1998; 손성욱, 2000; 오승은, 1994; 최미숙, 2005), 기독교인의 신앙성숙도와 사회성을 연구한 것은 기독교 아동과 비기독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이은희(1973)의 연구 외에는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아동의

사회성에 관한 연구는 많이 있지만 어머니의 신앙성숙과 관련된 사회성 연구는 찾아 볼 수가 없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 경기지역에 소재한 교회 2곳과 교회 부속 어린이집 3곳의 만 4, 5세 유아와 그들의 어머니 각각 1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교회 부속 어린이집은 담임교사를 통해 종교를 먼저 확인한 뒤, 연구 대상의 조건에 해당되는 어머니에게만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 유아의 일반적 배경과 어머니의 신앙생활 배경은 표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1> 연구대상 유아의 일반적 배경과 어머니의 신앙생활 배경(N=126)

빈도(%)

구분	구분	n(%)	
유아	성별	남	53(42.1)
		여	73(57.9)
	연령	만 4세	56(44.4)
		만 5세	70(55.6)
어머니	세례유무	유	104(82.5)
		무	22(17.5)
	신앙생활기간	5년 이하	28(22.2)
		5년-10년	12(9.5)

10년-15년	16(12.7)
15년-20년	13(10.3)
20년 이상	57(45.2)

표1과 같이 연구대상 유아는 남아가 53명(42.1%), 여아가 73명(57.9%)이다. 연령별로는 만 4세가 56명(44.4%), 만 5세가 70명(55.6%)이다. 연구 대상이 되는 기독교인 어머니들의 신앙배경을 살펴보면, 어머니들 중 세례를 받은 사람은 104명(82.5%),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22명(17.5%)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이 더 많았다. 어머니들의 신앙생활기간은 20년 이상이 57명(45.2%)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5년 이하가 28명(22.2%)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어머니의 신앙생활 내용을 살펴본 결과는 표2와 같다.

<표2> 어머니의 신앙생활 내용(N=126) 빈도(%)

내 용	구 분					합계
	참석하지 않음	한 달에 1번	한 달에 2번	한 달에 3번	매주참석	
주일예배참석	9(7.1)	11(8.7)	3(2.4)	15(11.9)	88(69.8)	126(100)
기도생활	전혀 안함	일주일에 1-2번	일주일에 3-4번	일주일에 5-6번	매일 기도함	
	9(7.1)	22(17.5)	27(21.4)	10(7.9)	58(46.0)	126(100)
성경읽기	전혀 안 읽음	한 달에 1-2번	일주일에 1-2번	2-3일에 1-2번	매일	
	17(13.5)	37(29.4)	18(14.3)	19(15.1)	35(27.8)	126(100)
성경공부모임	전혀 참석 않음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2번	한 달에 3번	빠지지 않고 참석	
	54(42.9)	25(19.8)	11(8.7)	13(10.3)	23(18.3)	126(100)

교회봉사활동	참여하지 않음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2번	한 달에 3번	매주 참여	
	45(35.7)	18(14.3)	5(4.0)	9(7.1)	49(38.9)	126(100)
헌금	전혀 하지 않음	거의 하지 않음	가끔씩 함	잘하는 편임	매우 잘함	
	20(15.9)	5(4.0)	14(11.1)	57(45.2)	30(23.8)	126(100)
가정예배	전혀 안함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2번	한 달에 3번	매주	
	76(60.3)	23(18.3)	3(2.4)	6(4.8)	18(14.3)	126(100)
자녀와 신앙에 기초한 대화하기	전혀 하지 않음	거의 하지 않음	가끔씩 함	잘하는 편임	매우 잘함	
	17(13.5)	19(15.1)	51(40.5)	24(19.0)	15(11.9)	126(100)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임	전혀 그렇지 않음	거의 그렇지 않음	그저 그러함	대체로 그러함	매우 그러함	
	12(9.5)	15(11.9)	38(30.2)	51(40.5)	10(7.9)	126(100)

표2에 의하면 주일예배는 매주 참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69.8%), 기도생활은 매일 기도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6.0%), 성경은 한 달에 1-2번 읽는 편이 가장 많았으나(29.4%) 매일 읽는 경우도 꽤 높게 나타났다(27.8%). 성경공부모임은 전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42.9%), 교회봉사활동은 매주 참여하는 편이 가장 많았으나(38.9%), 반면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도 매우 높게 나타났다(35.7). 헌금생활은 잘하는 편이 가장 많았으며(45.2%), 자녀와 신앙에 기초한 대화하기는 가끔씩 한다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40.5%),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는 대체로 그러하다고 대답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40.5%).

## 2. 연구 도구

### 1) 어머니의 신앙생활 검사도구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신앙생활의 실재를 측정하기 위해 김성원(2000), 박성현(2004), Kubzansky(2005) 등에 의해 공동적으로 사용된 신앙생활 문항을 참고로 이영주(2007)가 제작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는 응답자의 배경변인을 포함하여 총 12문항으로 구성된 측정도구이다. 본 도구의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 5점 척도이다. 각 문항의 내용은 문항의 질문에 따라 전혀 하지 않는 경우는 1점, 매우 그런 경우는 5점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수가 높을수록 꾸준하고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 계수는 .85였다. 이에 따른 어머니의 신앙생활 검사도구의 하위내용과 문항번호, 문항수는 표3과 같다.

<표3> 부모의 신앙생활 내용, 문항번호와 문항수, 신뢰도

구분	내용	문항번호	신뢰도
신앙생활의 일반배경	종파, 세례유무 신앙생활의 연수	1-3	
신앙생활	주일예배참석, 기도생활, 성경읽기, 성경공부, 봉사활동, 헌금, 가정예배, 주변의 일에 대한 신앙에 기초한 대화, 신앙의 모범	4-12	
전 체		12	.85

## 2) 유아의 하나님 개념 면접 도구

유아의 하나님 개념 검사 도구는 Dickie(1997) 등이 사용한 CGCQ(Children's God Concept Questionnaires) 면접 문항을 이영주(2007)가 번안하여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유아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의 네 가지 구성차원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총 2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척도의 구성은 3점 척도로 '정말 그래요'는 3점, '보통이에요'는 2점 '아니요'는 1점을 준다. 본 도구는 점수를 하위요인 별로 총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 하위요인의 하나님 개념이 강한 것을 의미한다. 신뢰도 계수는 사랑의 하나님은 .90, 전능하신 하나님은 .83, 엄하신 하나님은 .69, 멀리 계신 하나님은 .66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관련된 면접 도구의 하위 내용과 그에 따른 문항번호 및 문항수와 신뢰도는 표4와 같다.

<표4> 유아의 하나님 개념 하위변인, 내용, 문항번호 및 문항수, 신뢰도

구분	하위변인	내용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유아의 하나님 개념	사랑의 하나님	좋은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나를 행복하게 해 주시는 분, 내 친구같은 분, 우리말을 잘 들어 주시는 분, 슬플 때 위로해 주시는 분,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	1,6,7,9,10, 12,14,15,16, 20,25,26	12	.90
	전능하신 하나님	할 수 있는 일이 많으신 분,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 모든 일을 알고 계신 분, 뭐든 물어 볼 수 있는 분	2,3,13,17 18,19,22,23 27	9	.83

엄하신 하나님	엄하신 분, 나쁜 일을 하면 화를 내며 벌주시는 분,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나쁘다고 생각하시는 분	4,5,8 11,21,24	6	.69
멀리 계신 하나님	만나기 어려운 분, 멀리 계시는 분	28,29	2	.66
전 체			29	.77

### 3) 유아의 사회성 발달 측정도구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측정하기 위하여 광노의 등(1996)이 개발한 유아발달 수준검사와 김귀순과 이지은(2001)의 검사 도구를 참고하여 이은정(2004)이 만 3세에서 5세 유아를 대상으로 개발한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검사도구는 유아의 사회성을 친밀성, 적극성, 표현성, 활동성, 적응성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에 따른 문항은 총 27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의 채점방법은 긍정문항은 가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그렇다'는 5점, '그런 편'에는 4점, '보통'일 때는 3점, '그렇지 않은 편'일 때는 2점, '전혀 아니다'일 때는 1점으로 점수를 주어 계산하였다. 부정문항은 역채점을 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그렇다'는 1점, '그런 편'에는 2점, '보통'일 때는 3점, '그렇지 않은 편'일 때는 4점, '전혀 아니다'일 때는 5점으로 점수를 주어 계산하였다. 본 도구는 점수를 총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하고 활동적,적극적이며,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를 구한 결과, 친밀성은 .89, 적극성은 .91, 표현성은 .90, 활동성은 .88, 적응성은 .89로 나타났다

사회성 발달의 하위요인별 문항 구성과 채점방법 및 신뢰도는 표5와 같다.

<표5> 사회성 발달의 하위요인별 문항구성과 채점방법 및 신뢰도

하위요인	문항번호		문항수	신뢰도
	가채점	역채점		
친밀성	3, 4, 5, 6, 17, 25		6	.89
적극성	10, 15, 19	1, 2, 20, 23	7	.91
표현성	12, 13	11, 14, 21, 24	6	.90
활동성	7, 8, 22	9	4	.88
적응성	16, 27	18, 26	4	.89
계			27	.89

### 3. 연구절차

#### 1)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대상자 선정과 자료수집의 가능성, 연구도구의 타당성 검증, 자료 회수 소요기간 등 본 연구의 수행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본 검사에 참여하지 않는 서울시에 위치한 교회의 만 4, 5세 유아 10명(남 5명, 여 5명)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하였다. 2010년 6월 16일 어머니의 신앙생활 검사지는 본 연구자가 직접 어머니 1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각 문항이 모호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유아의 하나님 개념을 물어보는 면접은 별도의 조용한 방에서 유아 개인별로 진행되었다. 개인당 면접시간은 5분에서 7분 정도 소요되었으며,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대한 예비연구 진행 결과 유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수정하였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엄하세요?’라는 문항의 경우, 유아들이 ‘엄하세요

요가 뭐예요?’라고 물었다. 따라서 이 문항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라는 문항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문항이 긴 ‘하나님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령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야단치세요?’라는 문항을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으면 꾸중하세요?’로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하였으며, 어려운 어휘가 있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뉘우치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라는 문항의 경우는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빌면’으로 수정하였다. 유아의 사회성 검사지가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주일학교 교사 4명에게 본 연구자가 직접 배부하여 체크하도록 한 뒤 회수하였다. 회수된 질문지 총 24부를 예비연구의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2) 연구 보조자 훈련

유아의 하나님 개념 면접을 위한 연구 보조자 훈련이 2010년 6월 18일에 실시되었다. 연구보조자는 각 문항의 의미를 더 쉽게 이해하고, 면접 시 각 문항들을 유아들에게 친근히 잘 전달하기 위해 교회학교 선생님 1인을 선정하였으며, 2년의 유아교사경력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자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각 면접 문항에 대한 설명과 각 문항별 유아 대답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 주었다.

## 3) 본 조사

본 연구는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진 서울, 경기지역에 위치한 기독교 부속 유아교육기관 총 5곳을 선정한 후 각 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동의를 얻어서 2010년 7월 1일 ~ 9월 7일까지 실시되었다. 교회부속 유아교육기관이라도 어머니의 종교가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많아서 사전에 교사의 동의를 얻어 어머니의 종교를 먼저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신앙생활 검사지는 선정된 곳을 본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유아들의 담임 교사에게 전달한 뒤, 각 유아의 집으로 보내도록 하였다. 어머니 신앙생활 검사지는 총 280부의 질문지가 배포되었으며, 회수된 질문지 134부 중 응답이 성실하지 않거나 표기가 누락된 질문지 8부를 제외하고 총 126부를 최종적으로 사용하였다.

대상 유아의 사회성 발달 검사지는 각 유아의 담임교사에게 직접 배부하여 유아들을 평정하도록 하였다. 유아의 하나님 개념 검사는 유아가 예비검사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검사자 2명이 자유선택시간에 각각 한 명씩 설문지를 가지고 면접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하나님 개념 검사도구로 나타나지 않은 측면을 알아보기 위하여 하나님 그리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는 유아들의 그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통해 유아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분석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진행된 그리기 활동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예술적 가치나 기술적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미지화하느냐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어린이들의 표현 형태를 어른들이 보기에 기형적이거나 유치하게 여길지 모르나 그 표현행위 속에는 그들만의 정직한 느낌과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정대식, 1995).

본 연구자가 교회부속 A 어린이집의 만 4, 5세반 두 곳을 선정하여 오전 자유선택시간에 반별로 그리기 활동을 실시하였다. 먼저,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보고, 종이 한 장씩을 똑같이 준 뒤, 크레파스와 색연필, 싸인펜을 제공하였다. 그림을 그리고 난 뒤 자신의 그림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였으며, 그림의 내용이 면접자에 의해 그림에 기록되었다. 그림을 그리기 어려워하는 유아는 하나님 그림을 그리기를 실시하지 않았다.

#### 4. 자료 분석

본 연구는 SPSS 12.0을 사용하여 자료분석을 하였으며,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며, 유아의 하나님 개념과 사회성 발달은 각각 어떠한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어머니의 신앙생활 총점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 결과 및 해석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과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유아의 하나님 개념

#### 1) 성별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

성별에 따른 하나님 개념을 살펴본 결과는 표6과 같다.

<표6> 성별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N=126)

하위요인	남아(n=53)	여아(n=73)	전체(n=126)	t
	M(SD)	M(SD)	M(SD)	
사랑의 하나님	2.69(.44)	2.80(.46)	2.75(.50)	-1.76**
전능하신 하나님	2.64(.60)	2.75(.54)	2.70(.57)	-1.64
엄하신 하나님	1.90(.82)	2.14(.85)	2.00(.84)	-1.12
멀리 계신 하나님	2.22(.88)	2.27(.88)	2.25(.88)	- .37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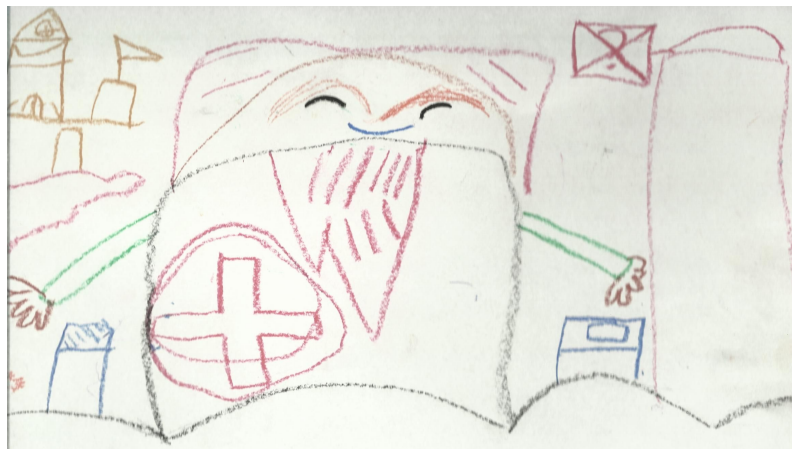
표6에 의하면 유아의 하나님 개념의 평균은 3점 만점에 ‘사랑의 하나님’이 2.75(SD=.50), ‘전능하신 하나님’이 2.70(SD=.57), ‘멀리 계신 하나님’이 2.25(SD=.88), ‘엄하신 하나님’이 2.00(SD=.84)로 나타났다. 즉, ‘사랑의 하나님’

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엄하신 하나님’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을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 모두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었으며 반면에 ‘엄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의 차이를 검증한 결과 ‘사랑의 하나님’ 개념에서만 여아의 평균이 2.80(SD=.46), 남아의 평균이 2.69(SD=.44)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유의하게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님 그리기 활동에서 먼저 남아, 여아 각각의 그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남아의 그림

가. 김정민, 남, 만 4세



이 유아는 십자가를 지닌 수염달린 하나님을 아주 크게 그려놓았다. 본 연구자가 그림에 대해 물어보자, “여기는 하나님이 사는 나라예요.”라고 답하였으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라고 물어보자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

에요, 하늘에서 항상 우리를 쳐다보고 계세요.”라고 답하였다.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매우 큰 엄청난 존재이며 사람들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실제로 이 유아는 하나님 개념(사랑의 하나님)은 매우 높은 편이었다.

나. 서주건, 남, 만 4세



이 유아는 얼굴 한 쪽이 붉은 하나님과 엄마, 교회를 그려놓았다. 본 연구자가 “하나님이 무엇을 들고 계시니?”라고 묻자 “방망이요, 교회에 안 가면 싫어하세요, 엄마도 싫어하세요.”라고 설명하였다. 이는 강희천(2002)의 연구에서 만 4, 5세의 유아들은 하나님이 매우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벌을 내리실 존재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즐겁게 해드리는 일에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고 밝힌 것과 일치하였다. 이와 같이 이 유아에게서도 하나님은 엄격하고 벌을 주시는 존재이다. 그런데 결사결과에서도 유아는 하나님 개념(엄하신 하나님)이 높은 편이었다.

다. 유성준, 남, 만 5세



이 유아는 분홍색으로 밑그림을 그려놓고 초록색으로 윗그림을 그려놓았다. 본 연구자가 그림이 어떤 장면인지 물어보았다. 유아는 “차타고 하나님 보러 가는 중이에요~그런데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보기 힘들어요~ 하늘을 날아다니세요.”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모습을 파악해 하늘을 날아다니시는 초인(superman)으로서의 하나님이며, 손으로 잡히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은 존재이다. 검사결과에서도 이 유아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개념은 멀리계신 하나님을 강하게 인식한다고 나타났다.

## (2) 여아의 그림

가. 서준희, 여, 만 5세



이 유아는 고래와 교회, 궁전을 그려놓고 아이같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그려놓았다.

본 연구자가 “하나님이 뭐하고 계시는 거니?”라고 묻자 “우리랑 춤추고 있어요.”라고 답하였다. 이 유아의 그림에서는 신인동형론적인 사고가 엿보인다(김국환, 2006). 이 유아에게 하나님은 가까이 있으며 함께 놀아주는 친구 같은 분이시다. 이 유아의 아빠는 전도사였으며, 자주 자녀와 찬양과 율동을 한다고 한다. 즉 따뜻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부모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그려낸 것이다. 유아의 하나님 개념 중 사랑의 하나님 개념이 높았다.

나. 박수진, 여, 만 4세



이 유아는 구두신고 치마입은 여성 이미지의 하나님을 그려놓았다. 무지개와 하트를 가리키며, 하나님이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으로 무지개를 보여준 것을 알고 있는 아이이다. 본 연구자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니?”라고 묻자 “우리를 사랑해주세요”라고 답하였다. 자신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어머니에게서 느끼는 감정을 하나님을 향한 감정에 반영시켜 유아는 사랑이 많고 친절한 하나님 이미지를 그려내었다. 이는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의 이미지는 아이들을 돌보고, 반갑게 맞이해주는 것과 관련된 것이다. 실제로 검사결과에서도 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사랑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의 점수가 높은 편이었다.

다. 이지연, 여, 만 4세



이 유아는 파란하늘에 무지개가 떠 있고 구름위에 두 천사와 함께 웃고 있는 하나님을 그렸다. 본 연구자가 유아가 그린 하나님에 대해 묻자, “하나님은 아주 높은 곳에 계세요, 무지개도 만드시고, 천사도 만드시고, 구름도 만드시고 해도 만드셨어요.”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 유아에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하나님 개념 중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상과 같이 남아, 여아의 그림을 살펴본 결과, 남아의 그림에서는 슈퍼맨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돋보이며, 매우 큰 능력을 가진 우리와는 조금 다른 느낌을 표현해낸 반면에 여아의 경우, 실제의 사람과 더욱 비슷하게 그렸으며, 긍정적인 이미지가 돋보이는 웃는 표정이 더 강조되어있다. 또한 다채로운 색상을 이용하여 그림의 공간을 채웠으며 남아의 경우보다 표현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면서 장식적이다. 이는 남아들의 경우 합리적이고 공정하며 권위적인 하나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아들의 경우 좀 더 동정적이고 돌보고 위로하는 이미지로서, 정서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가진 것을 의미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유아들 그림에서 나온 것처럼 여아들이 그림표현에서 ‘사랑의 하나님’ 개념이 더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 2) 연령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

만 4세와 만 5세 유아의 연령에 따른 하나님 개념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7과 같다.

<표7> 연령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N=126)

하위요인	만 4세(n=56)	만 5세(n=70)	전체(n=126)	t
	M(SD)	M(SD)	M(SD)	
사랑의 하나님	2.79(.50)	2.73(.49)	2.75(.50)	.96
전능하신 하나님	2.71(.62)	2.70(.53)	2.70(.57)	.12
엄하신 하나님	2.06(.87)	2.08(.81)	2.00(.84)	.52
멀리 계신 하나님	2.38(.90)	2.25(.88)	2.25(.88)	1.72

표7에 나타난 연령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을 살펴보면, 만 4세의 경우 ‘사랑의 하나님’이 2.79(SD=.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2.71(SD=.62), ‘멀리 계신 하나님’이 2.38(.90), ‘엄하신 하나님’이 2.06(SD=.87) 순으로 나타났다. 만 5세의 경우는 ‘사랑의 하나님’이 2.73(SD=.49), ‘전능하신

하나님'이 2.70(SD=.53), '멀리 계신 하나님'이 2.25(SD=.88), '엄하신 하나님'이 2.08(SD=.81) 순으로 나타났다. 즉, 만 4세, 만 5세 모두, '사랑의 하나님'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엄하신 하나님'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연령에 따른 유아의 하나님 개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한 결과 하나님 개념의 하위요인 모두,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은 만 4세, 5세의 그림을 분석한 결과이다.

### (1) 만 4세의 그림

가. 현지혜, 여, 만 4세



이 유아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함께 그려놓았다. 본 연구자가 그림에 대해 물어보자, 큰 네모는 교회, 작은 네모는 버스라고 답하면서 “버스타고 교회에 가면 예수님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라고 설명해 주었다. 하나님이 교회에만 계시냐고 물었을 때, “네, 교회에 가면 반가워 해주세요.”라고 답한 유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만나기 어렵지 않으며 늘 반겨주시는 분이다. 이 유아는 교회와 하나님을 관련지어 생각하고 있으며, 특정한 장소에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개념을 갖고 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항상 같이 있다고 믿었다. 검사결과에서 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 총점은 낮은 편이

였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

나. 박승우, 남, 만 4세



이 유아는 남성적 이미지가 강한 하나님의 얼굴을 종이에 꽉 채워 그려 넣었다. 본 연구자가 하나님 얼굴 표정에 대해 물어보았다. 유아는 “우리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며 옆에는 심부름을 하는 천사라고 설명하였다. 이 유아에게서 하나님은 공기와 같이 어디에나 계시는 분으로 늘 우리가 하는 것을 지켜보시고 돌봐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실제로 검사결과에서도 이 유아는 하나님 개념(사랑의 하나님)이 높게 나타났다.

다. 김강민, 남, 6세



하나님이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관찰력이 좋은 남자아이이다. 본 연구자가 그림에 대해 물어보았을 때, 오른쪽은 하나님인데 손에 있는 것은 빛이고 왼쪽 편은 애기 라고 대답하였다. 이 유아에게서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시는 마법사같은 분이시다. 이 유아는 하나님 개념 중 전능하신 하나님, 엄하신 하나님 개념이 높은 편이었다.

## (2) 만 5세의 그림

가. 나진영, 여, 만 5세



이 유아는 하나님은 남성적 이미지로, 천사는 여성적 이미지로 그려놓았다. 본 연구자가 하나님에 대해 묻자,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세요, 좋은 분이세요.”라고 답하였다. 이 유아에게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항상 사람들을 지켜 보며 도와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사랑의 하나님, 멀리 계신 하나님)이 높게 나타났다.

나. 문승훈, 남, 만 5세



이 유아는 신을 정말 신처럼 보고 있다. 실제로 “전능하신 하나님” 개념이 높았다.

본 연구자가 “그림의 여자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 유아는 하나님 옆에서 하나님을 돕는 천사라고 대답하였다. 이 유아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이시다. 또한 하나님은 직접 일하시기도 하지만, 천사를 시켜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유아의 하나님 개념 중 전능하신 하나님과 멀리계신 하나님 개념이 높은 편이었다.

다. 이슬아, 여, 만 5세



이 유아는 천사들과 함께 노래하는 하나님을 그려 놓았다. 그림은 하나님 나라를 상상하며 표현한 것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은 무지개도 있고요, 천사들도 있고요, 구름위에 계세요.”라고 설명해 주었다. 이 유아는 전능하신 하나님 개념이 높은 편이었다.

이상과 같이 만 4세, 만 5세의 그림을 살펴본 결과, 만 4세의 경우 색칠보다는 선으로 이미지를 표현하였으며 약간의 경직된 느낌을 주는 반면에 만 5세의 경우 면을 대부분 다 채우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두 팔을 벌려 웃는 얼굴 표정을 강조하여 포근하고 따뜻한 느낌을 표현하였다. 또한 천사와 함께 하늘 위에 있는 일반적인 하나님을 상징하는 표현이 나타났다. 이는 온화한 표정의

예수님이 손을 들고 계신 모습을 많이 보고 빛과 구름이 함께 연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신앙교육의 기회가 증가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더 많이 갖게 되는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그런데 검사도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하나님의 개념이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검증되었으나 이와는 다르게 아이들의 그림에서 표현의 차이를 발견해 볼 수 있었다.

## 2. 유아의 사회성

### 1)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8과 같다.

<표8>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N=126)

하위요인	남아(n=53)	여아(n=73)	전체(n=126)	t
	M(SD)	M(SD)	M(SD)	
친밀성	3.48(.79)	3.52(.79)	3.51(.79)	-.44
적극성	3.08(.94)	3.19(.95)	3.14(.95)	-.98
표현성	3.19(.92)	3.12(.94)	3.15(.94)	.98
활동성	3.80(.84)	3.68(.86)	3.74(.87)	1.44
적응성	3.38(.89)	3.46(.94)	3.43(.93)	-.92
전체	3.38(.88)	3.39(.90)	3.39(.90)	-.21

표8에 의하면 유아의 사회성의 전체 평균은 5점 만점에 '친밀성'이 3.51(SD=.79), '적극성'이 3.14(SD=.95), '표현성'이 3.15(SD=.94), '활동성'이

3.74(SD=.87), ‘적응성’이 3.43(SD=.93)로 나타났다. 즉, ‘활동성’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극성’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을 살펴보면 남아와 여아의 경우 모두, ‘활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아는 ‘적극성’이, 여아는 ‘표현성’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성별에 따른 사회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한 결과, 사회성의 하위요인 모두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2) 연령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만 4세와 만 5세 유아의 연령에 따른 사회성에 대해 살펴본 결과는 표9와 같다.

<표9> 연령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N=126)

하위요인	만 4세(n=56)	만 5세(n=70)	전체(n=126)	t
	M(SD)	M(SD)	M(SD)	
친밀성	3.45(.75)	3.82(.82)	3.51(.79)	-1.06
적극성	3.21(.87)	3.08(1.01)	3.14(.95)	1.24
표현성	3.21(.78)	3.24(1.02)	3.15(.94)	-.66
활동성	3.78(.77)	3.69(.94)	3.74(.87)	.98
적응성	3.39(.99)	3.46(1.02)	3.43(.93)	-.93
전체	3.41(.83)	3.46(.96)	3.39(.90)	.04

표9에 의하면 연령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을 살펴보면 만 4세의 경우는 ‘활동성’이 3.78(SD=0.77)으로 가장 높았으며, ‘적극성’이 3.21(SD=.87)이 가장 낮

게 나타났다. 만 5세의 경우 ‘친밀성’이 3.82(SD=0.82)으로 가장 높았으며, ‘적극성’이 3.08(SD=1.01)으로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즉 만 4세의 경우 ‘활동성’이, 만 5세는 ‘친밀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 4세, 만 5세 모두 ‘적극성’의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연령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성 하위요인 모두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3.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 1)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앙생활 총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하나님 개념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10과 같다.

<표10>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유아의 하나님 개념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측변인	R	R <sup>2</sup>	B	β	F
사랑의 하나님	신앙생활	.192	.037	.094	.192	4.733*
전능하신 하나님	신앙생활	.198	.039	.078	.198	5.076*
엄하신 하나님	신앙생활	.111	.012	.041	.011	1.554
멀리 계신 하나님	신앙생활	.115	.013	-.020	-.115	1.652

\* $p < .05$

표10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나님 개념을 예측해 주는 변인의 설명력은 ‘사랑의 하나님’이 3.7%, ‘전능하신 하나님’이 3.9%, ‘엄하신 하나님’이 1.2%, ‘멀리 계신 하나님’이 1.3%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유아의 하나님 개념 중 사랑의 하나님( $\beta=.192, p<.05$ ), 전능하신 하나님( $\beta=.198, p<.05$ )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신앙생활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가 하나님에 대해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 4.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 1)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신앙생활 총점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유아의 사회성의 하위요인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11, 표12와 같다.

먼저,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다음 표11과 같다.

<표11>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변인	R	R <sup>2</sup>	B	$\beta$	F
사회성	.255	.065	.25	.26	8.599**

\*\* $p < .01$

표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유아의 사회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다( $\beta=.26, p<.05$ ).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으며, 유아의 사회성을 예측해 주는 변인의 설명력은 6.5%로 나타났다.

다음은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유아의 사회성 하위 요인별 미치는 영향을 각각 살펴보았다.

<표12>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유아의 사회성 하위요인들에 미치는 영향

종속변인	예측변인	R	R <sup>2</sup>	B	$\beta$	F
친밀성	신앙생활	.222	.049	.08	.22	6.450*
적극성	신앙생활	.177	.031	.08	.18	3.998*
표현성	신앙생활	.082	.007	.03	.08	.836
활동성	신앙생활	.123	.028	.04	.17	3.599
적응성	신앙생활	.123	.015	.03	.12	1.891

\* $p < .05$

표1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유아의 사회성 하위요인 중 친밀성( $\beta=.22, p<.05$ ), 적극성( $\beta=.18, p<.05$ )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신앙생활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중 친밀성과 적극성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하나님 개념과 사회성 발달이 어떠한지, 성별과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요약,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 1. 논의

첫째, 유아의 전반적인 하나님 개념은 ‘사랑의 하나님’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엄하신 하나님’ 개념의 점수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사랑의 하나님’ 점수가 높다는 것은 유아 자신이 하나님에게서 사랑받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자신을 지켜봐주시는 좋으신 분으로 느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겠다. 반면에 ‘엄하신 하나님’의 점수가 낮다는 것은 자신의 잘못에도 용서하시는 분이며, 쉽게 분노하지 않으시는 분으로 인식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는 현대적 신앙교육의 경향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도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일반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내용이 기도와 찬양, 말씀 속에서도 많이 표현되어 있어 유아는 그러한 기독교적 환경으로 인해 자연스럽게 좋으신 분으로 인식할 수 있고,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자신을 사랑하듯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도 당연히 자신을 사랑하고 돌봐주신다고 이해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영주(2007)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이영주(2007)는 이에 대해 유아들이 하나님을 친밀하고 애착을 느끼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사랑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엄하시면서 가까이 계신 분임을

인식시켜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유아의 성별에 따른 하나님 개념의 하위 요인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사랑의 하나님’ 개념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성별에 따라 일반적으로 하나님 개념이 차이가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Heller, 1986; Swainson, 1939; 송희자, 이성숙, 1968; 이영주, 2007). 본 연구에서 성차에 의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개념의 차이는 남아와 여아의 성향에 의한 차이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대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애착의 대상에 대해 더 정서적으로 반응하며 친밀감을 표현한다는 김성희(2006)의 연구 결과는 본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신은정(2000)의 연구에서도 하나님에 개념에 대한 성별 차를 밝히고 있다. 여자 아동들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기 때문에 종종 실망하나 상상력을 통해 그것을 보상한다. 남자 아동들은 자신을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의 상(image)과 동일시한다고 밝혔다.

본 검사도구로 검증된 결과는 유아들의 하나님 그림을 분석한 내용에서도 이러한 주장과 일치한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여아들이 남아들보다 그림표현에 있어서 정서적으로 지원해주는 ‘사랑의 하나님’의 이미지를 더 잘 나타내고 있었다. 남아의 그림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수퍼맨같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돋보였으며, 여아의 그림에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장식적인 색상으로 실제의 사람과 더욱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웃는 표정이 강조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돋보였다.

한편, 유아의 연령에 따른 하나님 개념의 하위 요인에서는 눈에 띄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유아들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개념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김성원(2000)의 연구와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그러나 김성원(2000)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하나님 그리기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검사도구에서도 연령에 따른 하나님의 개념이 유의한 차이가 없다고 검증되었으나 이와는 다르게 유아들의 하나님 그림에서 표현의 차이를 발견해 볼 수 있었다. 즉 만 5세가 만 4세보다 표현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친근하고 온화하며 신적인 느낌을 나타내었다.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증가하고 생각할 기회를 많이 접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친밀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성별과 연령에 따라 하나님 개념을 살펴본 결과, 하위요인 중 ‘사랑의 하나님’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현대사회의 교회에서 유아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임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아가 하나님 표상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어머니의 반영이다. 유아들이 자신의 부모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하나님을 향한 감정에 반영되어서 어머니가 유아를 보호해주고 사랑한다면 유아는 사랑이 많고 친절한 하나님 이미지를 형성하며, 어머니가 체벌을 가하고 무섭게 대할 경우 유아는 두려운 하나님 표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 그리고 부모가 유아에게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보다는 그 행동을 하면서 유아를 대하는 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표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므로(김은실, 2006), 어머니를 통해 긍정적인 하나님 표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해 살펴본 결과, ‘활동성’의 점수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친밀성’, ‘적응성’, ‘표현성’, ‘적극성’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은, 남아와 여아 모두 ‘활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남자는 ‘적극성’이, 여자는 ‘표현성’이 가장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성별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검증을 한 결과, 사회성의 하위요인 모두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회성 발달의 평균점수가 여아가

남아보다 다소 높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한성희(198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병림(1986)에 의하면 사회성 발달 면에서 여아가 남아보다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으며, 정정자(2005)의 연구에서도 여아가 남아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 하지 않았다.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다소 높은 것으로 짐작되지만, 사회성 발달의 어떤 요소에서 차이가 있고 없는지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일관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연령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을 살펴보면, 만 4세는 ‘활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만 5세는 ‘친밀성’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또한 만 4세, 5세 모두 ‘적극성’이 가장 낮은 평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한 결과, 사회성 하위요인 모두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회성 발달이 연령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조성자(2003), 박범실(1987)과 정정자(2005)의 연구 결과와 일치 하지 않는다. 반면 연령에 다른 친사회적 행동의 차이가 없다는 박경원(1986)과 서봉연(1984)의 연구들과는 비슷한 맥락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예측변인으로 나타났지만 설명력은 작았다.

한편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 중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신앙생활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가 하나님에 대해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더 인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어머니는 하나님의 대리자이며, 대표자로서, 어머니의 성숙한 신앙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이다. 이

는 지, 정, 의의 전인격의 반영이므로 어머니의 성숙한 신앙은 어머니 자체의 영적이고 인격적인 태도에 변화를 주며, 이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려는 노력과 변화는 유아에 대한 반응과 태도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 따라서 어머니는 유아의 종교행위의 직접적인 모델이 되어 유아가 긍정적이고 애정적인 하나님을 표상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됨을 알 수 있다.

유아들은 하나님에 대해 쉽게 여러 가지 상상을 하는데, 아동기 초기의 하나님 표상들은 거의 전적으로 보호해 주고 권위를 갖는 부모의 특성을 갖는다(김은실, 2006). 부모가 기도를 하는 모습이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에 대하여 어른들이 말하는 것을 듣거나, 어른들이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보는 경험을 통해 유아의 하나님 표상은 유아의 상상력 속에서 환상과 섞이면서 하나님에 대해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하게 만든다.

김은실(2006)은 어머니의 신앙 성숙정도가 높을수록 유아의 하나님 표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일반적 배경 즉, 출석년수와 어머니의 직분, 그리고 성경공부 정도와 유아의 하나님 표상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이 한 가정의 신앙적인 분위기는 부모와 함께 드리는 가정예배나 신앙적인 대화, 기도, 예배 참석 등을 통하여 형성되며, 이를 통하여 자녀들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부모의 이러한 신앙의 실천적인 모습이 유아의 하나님 개념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사회성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사회성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설명력은 약하지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부모의 기독교적 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 높은 관계성이 있다고 한 Ligon(1996)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다.

성숙한 신앙인이라면 성경에 대한 많은 지식을 소유하는 것이나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는 것일 뿐 아니라 성경적 사고와 이타적인 행동이 어머니의 생활

속에 있어야 한다. 마음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행동이 유아에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그대로 전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머니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베푸는 이타적인 행동과 신념이 유아에게 반영되어 유아의 사회에 적응하는 것에서나 또래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성숙한 신앙을 지닌 어머니가 마음속에 중요하게 품고 있는 사랑, 용서, 협동 등과 같은 기독교의 미덕과 신념은 그의 행동과 말에 나타나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의 신앙인으로서의 본보기일 뿐만 아니라, 가정 밖에서의 사회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성품을 결정짓는 모델링이 된다. 이러한 부모의 세계관과 외현적인 모습들은 유아의 지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의미있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박경희(1994)의 가정과 교회에서의 기독교적 환경이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나타난 결과와 윤주병(2005)의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한 것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의 신앙생활이 유아의 사회성 하위요인 중 친밀성, 적극성에 대해서만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의 신앙생활 충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중 친밀성과 적극성이 높아짐을 보여주는 것이다.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어머니 일수록 유아가 다른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 친근하고도 적극적인 태도로 다가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어머니로부터 표출된 기독교의 미덕을 유아가 직접 학습, 모방하여 자신의 사회생활에도 긍정적인 행위로 표출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숙한 신앙인이 이타성이 높다고 말한 김연진(1993)의 연구처럼, 어머니들은 바른 신앙생활을 토대로 자녀에게 삶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2. 결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독교인 어머니들의 신앙생활 내용을 살펴보면 주일예배참석과 기도생활, 교회봉사활동과 헌금생활은 꾸준히 잘하는 편이었고 그 외 성경읽기 및 성경공부, 가정예배, 자녀와의 신앙에 관한 대화,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이느냐는 것에는 저조한 경향이 있었다.

둘째, 유아들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가장 많이 생각하였고 ‘엄하신 하나님’으로는 적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나님 개념은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지만 연령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이 많으신 분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셋째, 유아들은 사회성 발달에서 ‘활동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적극성’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한 사회성 발달은 성별과 연령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넷째, 어머니의 신앙생활과 유아의 하나님 개념을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 유아의 하나님 개념 중 ‘사랑의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신앙생활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하나님에 대해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어머니의 신앙생활은 유아의 사회성을 예측해 주는 변인으로 유아의 사회성 하위요인 중 친밀성과 적극성에 대해 유의한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머니의 신앙생활 총점이 높을수록 유아의 사회성 중 친밀성과 적극성이 높아짐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 있어서 제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사람의 사정과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신앙을 점수로 매긴 점이다. 신앙생활은 외현적인 모습으로, 내면적 믿음과 신념까지 다 나타낼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머니에게서 뿐 아니라 다른 양육자나 주변 인물 등에 의해 형성되어질 수도 있고 유아의 인지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종교를 기독교로 국한시킨 점이다. 각 종교의 고유특성과 가르침에 따라 신앙생활에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는 점이다.

넷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다른 내적, 외적 변인들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신앙생활에 국한시켜 해석하기는 부족하다는 점이다.

다섯째, 추후의 연구에서는 신앙생활을 측정하는 도구의 타당화를 통하여 각 사람의 사정과 환경을 고려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심도 있게 관찰하고 분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강미경 (2008). 가정환경이 유아의 언어 및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군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경호 (2008). 종교의 유무 및 신앙활동의 정도와 학교 적응의 관계, 충북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공성택 (1999). 학교생활과 도덕성 발달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2학년 여자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조선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곽선희 (1986).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지혜, **교육교회 122호**, 서울; 장신대 출판부,
- 김국환 (2006). 신앙발달과 기독교 교육, 서울: 한국기독교교육학회.
- 김경혜 (2003). 자녀가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와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 침례신학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난예 (2002). 하나님 표상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40(4), 47-69.
- 김미경 (1999). 기독교 가정교육, 서울: 대학예수교장로회총회, p186-191.
- 김성수 (2007). 종교정향과 신앙성숙도가 비행과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연 (2002). 통합적 동작 활동이 유아의 신체 발달과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진 (2006). 기독교 가정 안에서의 자녀교육, 합동신학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수환 (1999). 기독교인 비기독교인의 자녀양육에 관한 비교연구. 서울신학대 상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성원 (2000). 유아의 연령과 부모의 신앙교육 정도가 유아의 신학적 개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총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옥 (2000). 아동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 발달과 기독교 교육, **경인논집 통**

권 8호(2000,2), pp.37-51.

- 김신옥 (2002). 아동의 하나님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영유아교육연구**, 5, 23-47.
- 김연진 (1994). 기독교 대학생의 신앙 정도에 따른 이타성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애 (2003). 댄스스포츠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애숙 (2005). 유아기 부모의 양육태도와 사회성발달에 관한 연구, 대전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제 (2004). 아동의 하나님 표상 연구, 고신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은실 (2006). 어머니의 신앙성숙도와 유아의 하나님 표상과의 관계, 충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이 (1996). 어머니와 유아의 대화 정도와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중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옥 (2008). 기독교 가정에서 유아의 신앙발달을 위한 교육활동 현황조사, 충신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숙(2008). 집단 게임 교수방법에 의한 전래놀이가 만 5세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진 (200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사회적 지원과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인천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명옥 (2004).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중진 (2006). 태권도 교육에 따른 유아들의 사회성 발달 변화에 관한 연구, 용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성옥 (2004). 대상관계이론을 통해 본 유아의 하나님 표상형성에 관한 고찰,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정란 (2008). 미취학 아동에 대한 신앙발달론적 이해와 기독교교육,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영미 (1999). 기독교부모의 유아기 자녀 양육태도 조사,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혜영 (1998).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변인과 개인 내적변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문미옥, 이혜상 (1996). 5세 유아의 종교적 발달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79, 151-165.
- 박광농(2009). 제임스 파울러의 신앙발달이론에 근거한 하나님 이미지에 대한 고찰, 협성대 신학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박경희 (1994). 아동의 도덕적 판단력의 발달과 종교(기독교)와의 관계,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정(2004). 유아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언어통제유형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건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현 (2005). 어머니의 신앙 성숙도와 유아의 친사회적행동과의 관계, 충신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인 (2004). 체육활동이 유아들의 사회성 및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 우석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옥 (1985). 기독교인 어머니들의 유아양육태도 조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해연 (2004). 양육환경과 유아의 사회적 행동 및 정서적 표현행동의 관계, 충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효숙(2002). 현대 기독교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과 자녀교육의 방법, 고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경옥 (2005).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승희 (2005). 기독교 교육의 발달이론적 기초,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
- 손성욱 (2001). 기독교소년과 비기독교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정신건강, 계명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수일 (2006). 유아체육활동이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관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희 (1983). 아동의 신개념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영란 (2005). 유아의 신앙발달과 친사회적행동발달 증진을 위한 성경동화 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서울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희자, 이성숙 (1968). 아동의 신관에 관한 연구, **이대심리연구**, 9, 80-91.
- 설경옥 (2005). 아버지의 심리적 자세 및 양육참여도와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명숙(2007).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은정 (2000). 아동기의 하나님개념 형성과 기독교교육,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옥순 (1995). 현대 사회와 부모 교육. **논문집 29**, p183-195.
- 양광자 (1990). 노인의 신앙생활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 연세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승은 (1994). 삶의 목적수준과 종교성과의 관계, 이화여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주 (2007).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은옥 (1997). 초기 유아의 신앙형성에 끼치는 어머니의 영향,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1973). 기독교아동과 비기독교아동의 사회성에 관한 비교연구, 이화여

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은정 (2004). 한국 민속무용이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주영 (2006). 기독교 가정의 자녀교육과 부모역할의 연구, 한일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종희 (1986). 한국 아동의 하느님 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혜상 (1994). 기독교 유아교육과정 모형 개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임혜영 (2007).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유아교육기관 초기 적응과의 관계, 가톨릭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상무(2004). 기독교 가정의 자녀교육을 위한 부모의 역할, 협성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선애 (2001). 기독교소년의 신앙성숙도와 사회성에 관한 연구. 고려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윤주병 (2005). 종교심리학, 서울; 서광사.

왕희경 (2009). 기독교 가정의 유아기 어린이를 위한 신앙교육. 서울신학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원희영 (1998). 아버지 놀이참여 수준과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연구, 서울여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교식 (2003). 기독교신앙 수준에 따른 자기존중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한양대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전진석 (2005). 유아들의 체력수준에 따른 사회성 발달 차이에 관한 연구, 용인대 체육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정미자 (2006).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언어형태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자 (2005). 부모의 역할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숙도에 관한 연구, 동아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정숙 (1997). 기독교교육학. 서울; 도서출판 베다니.
- 정채옥 (2001). 유아 신앙의 발달적 특성과 교육적 접근, **광신논총**, 10, 337-410.
- 정희영 (2004). 기독교 유아교육론, 서울: 교육과학사.
- 정희영 (1996). 유아세례에 관한 교육적 고찰, **총신대학교 논문집**, 15, 221-240.
- 조성자 (2003).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모세 (2005). 시설아동과 일반아동의 사회성발달 비교,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미경, 박성연 (1991). 부모교육경험이 부모의 자녀교육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86, pp.191-207.
- 최미숙 (2005). 종교교육이 청소년의 성격, 생활적응, 정신건강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은경 (2009).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아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윤정 (2001).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연구, 관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승자 (2005). 초기 양육자와의 관계 경험이 자기, 타인, 하나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재희 (2006). 자아정체성과 하나님이미지와 신앙성숙의 관계연구. 안양대 신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진양 (2004). 동작활동이 유아의 사회적 능력발달에 미치는 영향, 중부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동원 (2009). 유치원생들의 신체활동이 사회성에 미치는 영향, 목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애희 (2009). 유아의 기질, 언어능력 및 대인관계유형이 유아의 사회적 힘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함용선 (2003).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성 발달에 관한 연구, 남부태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Fowler, J. W. (1994). 신앙의 단계들(이재은 역), 서울; 대한 기독교출판사.
- Michael, St. (1998). 인간의 관계경험과 하나님의 경험(이재훈 역), 서울: 한국 심리치료연구소.
- Packer, J. (1980). 하나님을 아는 지식(서문강 역). 서울: 기독교문사.
- Stott, J. R. W. (1999). 존스토티의 신앙생활가이드(김일우 역). 서울: IVP.
- Carrier, H. (1965). The sociology of religious belonging. New York: Herder and Herder
- Harms, E. (1944). The development of religious experience in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no. 50, 112-122.
- Murphy, R. (1978).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the development of the religious thinking in children. *Educational Studies*, 4(1), 19~22.
- Piaget, J. (1950). The Child's Conception of the World, New Jersey.
- Wright, W. D., & Koppe, W. A. (1964). 'Children's Potential Religious Concept, *Character Potential*, no. 2, 83-90.

## ABSTRACT

### **The influence among mother's religious life, children's God concept and social development**

Lee, Jung-min

Dep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of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During infancy which is important in the formation of personality, to research how the mother's religious life influences the God of the infants in the recognition and internalization of the concept will affect any of the children, social development, and how closely is to see if that can be connected. The specific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hat is the concept of God's children?

1-1. Depending on the concept of God's children are the differences in gender?

1-2. The concept of God according to the age of children are the differences?

2) What about socialization of children?

2-1. According to gender socialization of children are the differences?

2-2. Socialization of children in this age is the difference?

3) Does the mother's religious life influence in children's God concept?

4) Does the mother's religious life influence in social development?

This study in Seoul, Gyeonggi Province church affiliated daycare centers located in three places where the church 2 10 004, 5 year olds and their mothers were enrolled. Research tool to measure the mother's religious life and religious life scale was used to grasp the concept of God, Children of God, the concept was to interview and representation activities, in order to measure the social development of children was used to measure social development . The data collected by the research problems of frequency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t test, sim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fants' Dear God 'was the most thought' care of my stern God, I found that include fewer. In addition, the concept of God according to sex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age did not differ depending on. In other words, more girls than boys and a loving God have tended to recognize minutes.

Second, social development, children in the 'activity' was the highest in 'Aggression' was the lowest. In addition, social development, according

to the gender and ag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rd, the mother of the child's faith life and the concept of God as factors that predict the child's concept of God, 'Dear God' and 'Almighty God' for having had significant explanatory power.

Fourth, the mother of the child's faith life, social factors that predict the child's social skills and assertiveness in the intimacy of the factors having a significant variance was found.

## 부 록

<부록 1> 어머니의 신앙생활 질문지

<부록 2> 유아의 하나님 개념 면접도구

<부록 3> 유아의 사회성 발달 질문지

<부록1> 어머니용 신앙생활 질문지

다음은 어머니의 하나님 개념에 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잘 읽으신 후 각  
란에 따른 내용에 기재해 주시거나, 해당되는 곳에 √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어머니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기독교(개신교) \_\_\_\_\_ 카톨릭 \_\_\_\_\_ 불교 \_\_\_\_\_  
무교 \_\_\_\_\_ 기타 \_\_\_\_\_

2. 종교가 기독교(개신교)이시라면 어떤 교회에 다니십니까?

장로교 교회 \_\_\_\_\_ 감리교 교회 \_\_\_\_\_ 오순절파(순복음)교회 \_\_\_\_\_  
성결교 교회 \_\_\_\_\_ 침례교 교회 \_\_\_\_\_ 기타 \_\_\_\_\_

3.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예 \_\_\_\_\_ 아니오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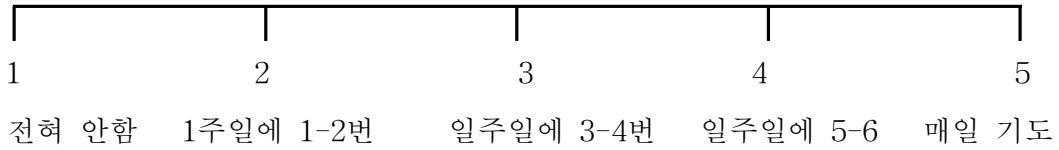
4. 신앙생활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  
1                          2                          3                          4                          5  
5년이하          5년-10년          10년-15년          15년-20년          20년이상

5. 주일예배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십니까?

┌──────────┴──────────┬──────────┬──────────┬──────────┬──────────┐  
1                          2                          3                          4                          5  
참석하지 않음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2번          한 달에 3번          매주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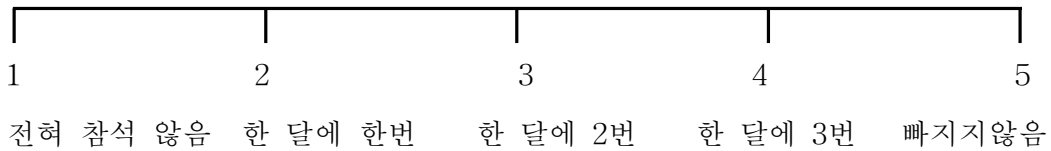
6. 기도생활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7. 성경을 얼마나 자주 읽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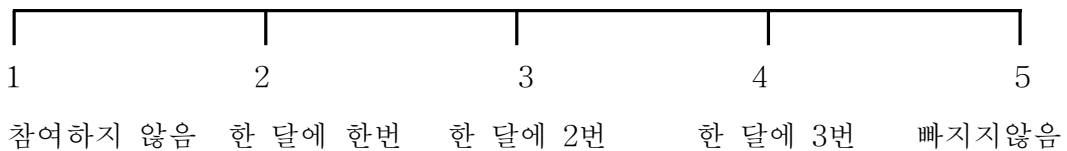


8. 신앙훈련을 위한 성경공부 모임에 얼마나 참석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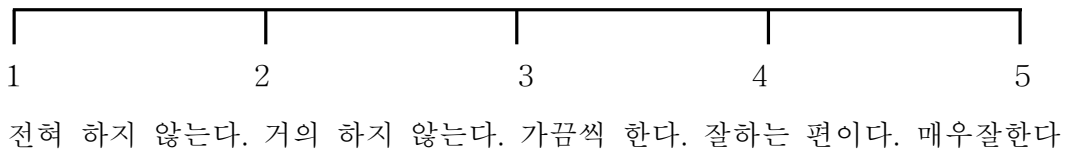


9. 교회봉사활동 중 적어도 한 곳에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

(예: 성가대, 교사, 식사준비, 안내 등)



10. 헌금 생활을 성실하게 하십니까?(예: 주일천금, 십일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등)



11. 가정예배를 드리십니까?

1	2	3	4	5
전혀 안함	한 달에 한번	한 달에 2번	한 달에 3번	매주

12.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제로(TV 뉴스, 신문기사, 주변 사람 이야기 등) 자녀들과 신앙에 기초한 대화를 얼마나 하십니까?

1	2	3	4	5
전혀 하지 않는다.	거의 하지 않는다.	가끔씩 한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잘한다

13. 자녀에게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잘 보이십니까?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거의 그렇지 않다.	그저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그렇다

<부록2> 유아용 하나님 개념 면접 도구

기관: 성별:	날짜: 연령:	이름:	아 니 오	보 통 이 예 요	정 말 그 래 요
1. 하나님은 아주 좋은 분이세요.					
2. 우리는 하나님과 이야기할 수 있어요.					
3.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4.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세요.					
5. 하나님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일을 지키지 않으면 꾸중하세요.					
6. 하나님은 우리말을 잘 들어 주세요.					
7. 하나님 내가 속상할 때 내 편이 되어 주세요.					
8. 하나님은 우리가 나쁜 짓을 하면 벌을 주세요.					
9. 하나님은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돌봐주세요.					
10.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할 일을 열심히 하는지 지켜보아 주세요.					
11. 나는 하나님이 무서워요.					
12. 하나님은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13. 하나님은 아픈 사람들의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어요.					
14.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나 장난칠 때에도 늘 돌봐 주세요.					
15. 하나님은 나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16.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17. 하나님은 무슨 일이든 다 해결해 주시는 대장 같은 분이세요.					
18.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세요.					
19.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세요.					
20.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생각하면 힘이 나요.					
21. 하나님은 내가 나쁜 짓을 하면 화를 내세요.					
22.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지 다 알고 계세요.					
23.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요.					

24. 하나님은 때때로 벌을 주시기도 해요.			
25. 하나님은 내가 잘못을 빌면 언제든지 용서해 주세요.			
26. 하나님은 친구처럼 내 마음을 잘 알아주세요.			
27.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주셨어요.			
28. 하나님은 아주 먼 곳에 계세요.			
29. 하나님은 만나기 어려워요.			

### <부록 3> 유아의 사회성 발달 질문지

\*\*\* 다음의 질문은 유아의 사회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생님께서 보신 유아의 행동과 일치하는 정도에 해당하는 칸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항의 내용	매우 그렇다	그런편	보통	그렇지 않은편	전혀 아니다
1. 아이는 평생 시 조용히 있는 편이다.					
2. 아이는 처음 보는 사람을 피하는 편이다.					
3. 아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있을 때 편안해 한다.					
4. 아이는 처음 보는 친구의 손을 잡고 노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다.					
5. 아이는 친구가 먼저 말을 걸면 꼭 인사를 한다.					
6. 아이는 대부분 먼저 친구에게 인사를 한다.					
7. 아이는 혼자 하는 놀이보다는 여럿이 하는 놀이를 좋아한다.					
8. 아이는 뛰어 다니는 것을 좋아한다.					
9. 아이는 친구와 함께 있지 않으면 불안해한다.					
10. 아이는 처음 보는 친구에게도 쉽게 이야기 한다.					
11.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가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를 낸다.					
12. 아이는 자신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웃는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					
13. 아이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편이다.					
14. 아이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마음을 상한다.					
15. 아이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16. 아이는 자신의 순서를 기다리는 편이다.					
17. 아이는 친구들이 도움을 청하면 응하는 편이다.					
18. 아이는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자주 떠든다.					
19. 아이는 다른 친구들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주 개입한다.					
20. 아이는 자신의 일이 아닌 것은 거의 간섭하지 않는다.					
21. 아이는 선생님이나 어른이 시키지 않는 것을 하지 않으려 한다.					
22. 아이는 결과는 좋지 않아도 열심히 하려고 한다.					

23. 아이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하려고 한다.					
24. 아이는 모르는 사람이 손을 잡으면 뿌리친다.					
25. 아이는 울거나 슬퍼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달려어 주려고 한다.					
26. 아이는 친구들보다는 선생님이나 어른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한다.					
27. 아이는 처음 가는 장소에서도 쉽게 친구들과 어울린다.					